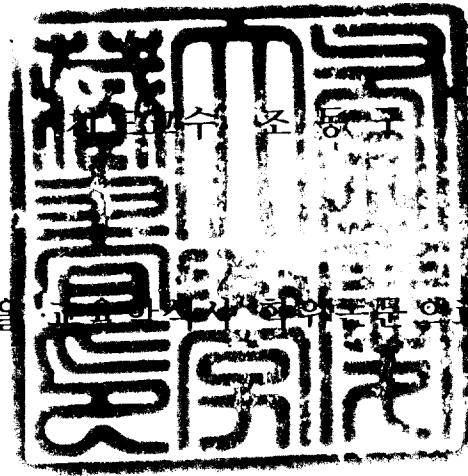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교육방법 연구  
-고등학교 『국어(상)』의 ‘진달래꽃’  
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제출함

2005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현 숙

# 김현숙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8월 31일

주심 문학박사 송명희 (인)

위원 문학박사 남송유 (인)

위원 문학박사 조동구 (인)

# **목 차**

|                                   |     |
|-----------------------------------|-----|
| <b>* 영문초록</b>                     | iii |
| <b>I. 서론</b>                      | 1   |
| 1. 연구 목적                          | 1   |
|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 4   |
| <b>II. 이미지 중심 시교육의 필요성</b>        | 12  |
| 1. 시교육과 이미지                       | 12  |
| 2. 현대시의 이미지 교육의 현황                | 20  |
| 3.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교육의 필요성            | 29  |
| <b>III. 이미지 중심 현대시 교육의 전략과 방법</b> | 32  |
| 1. 이미지 중심 현대시 수업의 전략              | 32  |
| 2. 이미지 중심 현대시 수업의 모형              | 35  |
| <b>IV. 이미지 중심 현대시 지도 방법의 실제</b>   | 46  |
| 1.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수업 계획              | 46  |
| 2.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수업의 실제             | 48  |
| 3.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교육의 효과             | 73  |
| <b>V. 결론</b>                      | 78  |
| <b>【참고문헌】</b>                     | 82  |

## < 표 · 그림 목차 >

|                              |    |
|------------------------------|----|
| 【표 1】 설문1>-----              | 24 |
| 【표 2】 설문2>-----              | 24 |
| 【표 3】 설문3>-----              | 24 |
| 【표 4】 설문4>-----              | 25 |
| 【표 5】 설문5>-----              | 25 |
| 【표 6】 설문6>-----              | 25 |
| 【표 7】 설문7>-----              | 26 |
| 【표 8】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수업 모형----- | 38 |
| 【표 9】 수업 계획-----             | 46 |
| 【표 10】 설문1-1>-----           | 74 |
| 【표 11】 설문2-1>-----           | 74 |
| 【표 12】 설문3-1>-----           | 74 |
| 【표 13】 설문4-1>-----           | 75 |
| 【표 14】 설문5-1>-----           | 75 |
| 【표 15】 설문6-1>-----           | 75 |
| 【표 16】 설문7-1>-----           | 76 |
| 【그림 1】 생각그물 만들기-----         | 64 |
| 【그림 2】 시집 ‘진달래꽃’ 표지-----     | 64 |

Research on the Teaching Method of Image-Centered Modern Poetry  
-focusing on the Poem 'Azalea' of the High  
School Korean(the first Volume)-

Hyun Sook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mage of poem is the most important equipment to be helpful to analysis of the poem as alluded in the definition. Poets search for the ways to form their desirable ideas , experiences or imagination as an aesthetical and appealing ones, and the ways are just the image which delivers meanings and changes emotion to the readers.

So a teaching model of image centered modern poem was applied as I had expected the students' poetic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surely to extend after their catching the image of the poem in the process of learning.

In the Introduction, past education of poem, research for the poem teaching, present image centered poem teaching was gone through and the need for student centered image teaching was asserted.

In the Chapter II, importance of image and its relation to poem teaching, present image teaching through simple survey, significance and need of image centered teaching poems for higher appreciation in the modern poem teaching were examined.

In the Chapter III, the strategy and lesson model for image centered poem teaching were created.

In the Chapter IV, the created lesson model was applied to the real class with the picked poem 'Azalea' from Lesson 6. Beauty of Song in the

textbook, High School Korean(Sang). Focusing on the egoistic and dominating image of the poem, I found out the students' more understanding and better interesting as a result.

Detailed teaching activities are as follows. Finding superficial and deep image of the poem, looking for hidden legend or tales in the title, close reading or speaking out the poem thinking its image, searching sensible, partial image, making mind map focusing on the image of the poem, rewriting to dialect, searching for the change of the image with changed tense or word order, finding song words having similar image had been taught to the students. And the last activity was to enlarge the translation of the poem with its epoch situation.

Expected effects of this teaching model are as follows.

First, student centered active learning will be available.

Second, internalization-thinking much of teaching poems- will come true at the most steps of the poem.

Third, students will be sympathized to the speakers' situation and will be able to dissolve their fear for the poem.

In this thesis, methods to apply the poetic image to the class for teaching subjective poem appreciation had been suggested. Now that the methods are for enlarging poetic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variant methods should be studied and practiced continuously according to the kind and content of the poem , teaching situations.

# I. 서론

## 1. 연구목적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문학 또는 시를 배우고 접한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나 관심 있는 독자의 한사람으로 시를 만나기도 하고, 시를 비평하고 해석하기 위한 전문적인 독자로 시를 읽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에 속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교육의 단계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시와는 인연을 끊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시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고등학교까지의 국어나 문학 과목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생시절 어떻게 시를 접하고 배우느냐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시는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느껴지는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서 보통의 사람들이 시를 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시적 분위기일 것이다. 즉 시 속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 빠져 시를 여러 방법으로 해석하며 개개인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해하고 정서가 순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시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은 학습자마다 다양할 것이다. 작품의 이미지나 분위기, 나아가 주제나 작가의 인생관 등에 관한 해석은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이나 문화적 환경, 직접 또는 간접경험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시의 이미지는 시의 주제나 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중

요한 언어적 장치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미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하고 독자들은 이런 이미지를 통하여 언어적 형상에서 이미지를 찾아내고 이 이미지가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감상하게 된다. 따라서 시의 이미지는 시의 창작과정과 수용<sup>1)</sup>과정에 두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2)</sup>

시 교육의 시작은 작품을 접한 후 감상<sup>3)</sup>에서 비롯된다. 시의 감상<sup>4)</sup>이

- 1) 문학 텍스트를 수용한다고 할 때, '수용'이라는 것은 독자 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 즉 창작 텍스트가 수용자에 의해서 구체화될 때, 독자가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용 미학은 문학 작품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수용자의 작품 체험 속에 내재해 있다는 통찰 하에, 문학 텍스트 이해의 기준을 수용자의 '심미적 경험'에 두고 문학 작품의 역사적·심미적 연관성을 성찰하여 작품의 예술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지나친 수용자 중심의 또 다른 폐해를 낳는다는 견지에서 타학문과의 조심스러운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 박영목(외),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2002, pp.326~327.
- 2) 이미지는 역동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미지 구조, 이미지의 구조화, 이미지 창조, 심상 체계 등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요즘은 이미지 형상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 개념은 이미지 개념에 역동성과 현재성을 부여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이미지 형상화는 창작 주체가 시 텍스트를 창작하는 독특한 방법이며 세계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요즘의 이미지 범람(현재의 정보화 사회는 기존의 이미지에 데이터, 정보, 지식과 매스컴과 미디어의 다양화)은 소수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과 소수의 감식력을 지닌 사람들 간의 은밀한 교감, 소통의 장이었던 상상력의 차원에서 다수의 대중이 거의 모두 참여해 이미지를 창조하고 향수할 수 있게 되었다. 천성민, 「이미지 形象化를 통한 詩創作 教育의 實踐의 研究」,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2.
- 3) "감상은 그저 생각하는 대로 멋대로 생각해버리라는 방임이 아니라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판단에 이룸으로써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바로 이 점이 이해와 감상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시사한다. 모든 지식과 그에 기반한 인간 활동이 그러하듯이 이해 영역의 지식은 감상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줄 것이다. 김대행, 『문학교육 틀짜기』, 도서출판 역락, 2000, p. 177.  
"올바른 감상이야말로 문학의 궁극적 목표인 정신적 행복과 위안을 성취함으로써 인간적 고양을 향수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 실상 감상의 요체를 발견하고 문학의 철학성과 그 아름다움이 발견되면 이미 시는 충분히 분석되고 이해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시 분석론의 마지막 과정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김재홍, 「시교육의 방법」, 김은전(외), 『현대시교육론』, 시와시학사, 2000, p.77.
- 4) '감상(感賞)이라는 말은 어딘지 느슨한 데가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듯하다. 일반적으로 비평이 문학작품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둔 분석적이고 평가적인 감각을 담고 있다면, 감상은 작품에 주체적으로 몰입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통해 향수한다는 감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문학교육이 후자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란 이미지를 찾아서 이를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독자들은 시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시의 이미지를 배제하고는 시 감상이 구체화되지 못한다<sup>5)</sup> 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창작’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창작활동을 보다 강조<sup>5)</sup>하고 있지만 올바른 작품감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이미지에 대한 교육은 다분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 다.<sup>6)</sup> 어떤 시의 어느 부분이 어떤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을 기계적으로 전달하고, 학습자는 그대로 외우는 상황에서 시의 이미지는 문학 지식의 범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sup>7)</sup> 그러나 올바른 시 감상을 위해서 이미지는 학습자들이나 독자들이 외워야 할 지식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하

---

러한 감상의 구체적 내용으로 대표될 만한 용어가 ‘照應’이 될 것이다. 시를 향유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주체가 되어 그 작품 속 화자가 되어 보고, 그런 다음에 적당한 거리를 지니면서 판단을 해야 한다. 시 작품을 조응을 통하여 감상하는 태도는 모든 언어 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주체적 판단의 세계와 직결된다. 김대행, 「시교육의 내용」, 김은전(외), 앞의 책, pp.37~38.

- 5)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시의 수용과 창작활동을 통하여 문학능력을 기른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시 감상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해-감상-창작의 연계과정이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화, 정보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학교수업에서 시교육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그럴수록 학생들의 정서적 능력과 새로운 경험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 6)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거의 영미의 신비평 이론이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교육 특히 시교육에 있어서 신비평적 관점은 시를 운율, 이미지, 상징 등의 각각의 구성요소로 쪼개어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문학과 사회의 연관성보다는 미적인 아름다움 즉 순수시의 관점을 견지하여 시를 학생들의 경험과 유리된 신비적인 것, 시는 범인(凡人)이 아닌 천재들이나 창작할 수 있는 언어적 형상물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하였다. 즉 신비평적 문학관은 작가나 독자보다는 작품 중심의 관점을 더 중요시하므로 학생들의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7) 이러한 작품해석과 교사의 주입식 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저하시키고 시를 어렵고 외워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문학교육연구는 거의 신비평 이론의 영향을 받았고, 시교육에 있어서 시를 운율, 이미지, 상징 등의 구성요소로 쪼개어서 가르쳤으며, 시를 학생들의 경험과 유리된 신비적인 작품 중심의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독자의 측면에서는 이해에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여 시인이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바를 찾아내서 느껴야 할 내용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시 감상능력을 증진시키는 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시교육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미지에 대한 사고<sup>8)</sup>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여겼던 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시키고, 시를 수용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시를 창작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시에 대한 능동적인 감상을 돕고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이미지 중심 시 수업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 (1) 연구사

시 교육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였다. 독자적인 시 교육론의 연구가 있기 전에는 사실 문학교육 안에 시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여서 문학교육의 목표나 이론은 바로 시 교육 연구의 밑바탕이 되었다. 문학교육론의 논의 방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으로 초점이 모아졌고 시 교육론에 있어서도 시 교육의 방법들

---

8) 유영희는 이미지의 층위를 단어차원, 문장차원, 시 텍스트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이미지 등 여러 차원의 이미지를 '이미지화'라는 개념으로 묶고 부분도 시텍스트 전반의 문제로 확장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유영희, 『이미지로 보는 시창작 교육론』, 도서출판 역락, 2003.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다.

시 교육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타나는데 첫째, 시교육의 이론적 방법을 모색하면서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제시하는 경우<sup>9)</sup>, 둘째, 시 교육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우<sup>10)</sup>, 셋째, 교과서를 중심으로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sup>11)</sup> 등이다.

- 
- 9) 강현재, 「시교육의 수용론적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  
김이상, 『시교육론』, 육일문화사, 1994.  
윤근우, 「시교육방법론-학습자 중심의 시교육」,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박수경, 「현대시 교육에서의 상호 텍스트성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0.  
탁동식, 「상호 관련 시 텍스트 읽기를 통한 시적 체험의 확대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0.  
류성충, 「산문화 과정을 통한 시 지도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9.  
김기태, 「효과적인 시 지도와 감상력 신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5.  
노창수, 「현대시 교재의 수용적 이해를 위한 전체적 접근 단계의 수업전개 방법」, 미원 우인섭 선생 회갑 기념 논문집, 집문당, 1986.  
김주향, 「시교육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  
정삼조, 「시 주제 지도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1994.
- 10) 김자영, 「중학교 시 교육 개선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김창림, 「중학교 시 교육의 실태와 바람직한 교육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김 숙, 「시의 본질적 특성에 따른 시 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정선희, 「현대시 수업 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윤현이, 「감상력 신장을 위한 시 수업 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 11) 이남호,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문학, 2001.  
김자영, 「중학교 시 교육 개선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이화선, 「시 교수·학습의 개선 방안 연구」,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박대홍, 「고등학교 시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조상휘, 「시 교육의 효율적 방안 연구: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시를 중심으로」, 순천향대 교육대학원, 2000.  
송상운, 「현대시 교육방법 연구-화자 영역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최종민, 「시교육방법론 연구-시 교육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유영희,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시교육방법 연구-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먼저 시교육의 이론적 방법을 모색하면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한 경우이다.

강현재는 수용이론과 스키마 이론에 입각한 시 지도 방법을 연구하였고, 김이상은 시 작품을 통하여 학습자의 내면 세계를 가꾸기 위한 방법으로 수용이론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윤근우는 학습자의 개별적인 능력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각자의 해석을 토대로 시 작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수업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박수경은 수용자의 문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텍스트 비교를 통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였고, 탁동식은 시적 체험의 확대 방안으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시 읽기 지도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성춘은 산문화 과정을 위한 방법으로 ‘시어의 구체화→시행의 동사적 완성→연의 의미 공백의 실행→종합적 해석→감상’을 제시하고 있고, 김기태는 시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카드를 이용한 핵심어, 연상어 추출, 주제 파악, 감상의 4단계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노창수는 전체적 접근, 부분적 접근, 종합적 접근, 발전적 접근이라는 모델에 따라 교육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향은 상상력 계발을 시의 교육적 의의로 보아 상상력의 환기, 조정, 확장 단계에 따른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고, 정삼조는 시 주제라는 특정 영역에 대한 지도 방법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두 번째, 실제 교육현장에서 시 지도상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이다. 김자영과 김창림은 시 교육에서 감상 위주의 수업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시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숙은 시의 본질적 특성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정선희와 윤현이는 기존

---

이원표, 「고등학교 시수업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이성관, 「시창작력 신장을 위한 고찰 : 중등학교 시교육을 중심으로」, 전남대 교육대학원, 1995.

의 시 수업 모형에 관한 제 이론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교과서에 실린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연구로는 이남호가 교사들이 문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학생들에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고, 김자영, 이화선, 조상휘, 유영희 등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시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박대홍, 이원표, 이성관 등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시감상을 위한 학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나름대로 가치와 효용성을 지니고 있지만 학습자 중심의 시교육 방법으로만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학교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경우에도 이론적인 성격이 강하고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시 교육에서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인의 언어는 이미지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sup>12)</sup> 이런 의미에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시 교육 연구 논문<sup>13)</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주향은 시교육에서 교사 중심의 분석적, 주입식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이 시에서 받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감상 지도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체계적인

---

12) 이향아, 『시의 이론과 실제』, 청아출판사, 1993, pp.84~85.

13) 김주향, 「시 교육방법 연구 : 상상력 계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유영희,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김혜란, 「시의 교육방법 연구-이미지 요소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천성민,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 교육의 실천적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손은정, 「현대시 교육방법 연구-상상력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김지영, 「현대시 이미지 교육방법 연구-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시지도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다소 단편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유영희는 이미지 형상화와 반응 중심문학론의 과정 중심 시지도 방안으로서 창작주체의 사고와 텍스트, 말, 행동, 몸짓의 표현이 구체화되면 이미지 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나 너무 창작주체만을 강조하고 미학과 성인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시의 창작단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이해나 감상 영역은 다소 소홀히 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김혜란, 김지영 등은 현대시 교육의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교육에서 이미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미지를 활용한 시 교육의 당위성을 제시하면서도, 대체로 시교육 방법의 일부분으로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천성민은 앞에 제시한 이미지 형상화 개념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시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중등학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손은정은 이미지와 상상력의 통합으로 학생들의 시 감상력을 높이려 텍스트 이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상상하기, 감상의 확대 과정으로 한 편의 시를 3차시 동안 가르치려 하였다. 이것은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다소 무리가 따르는 계획으로 보인다.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전환되고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과 접촉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데는 반드시 인간의 상상력이 작용한다.<sup>14)</sup> 이러한 상상력에 의해 표현된 시작품에는 빈자리가 많다. 독자는 시

---

14) 시를 읽을 때 우리는 마치 한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시 텍스트에 시적 이미지가 형상화되어, 시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머리 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적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5가지 감각을 통해 체험한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기능을 한다. 사람의 5가지 감각은 보고(시각), 듣고(청각), 맛보고(미각), 냄새 맡고(후각), 만지면서 느꼈던 감각(촉각)을 되살려준다.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독자가 갖는 시적 이미지는 독자의 머리 속에 상콤한 추억과 기억을 떠올려 주면서 시 텍스트를 이해하고 가망하기 위해 독자가 인식적이고 조율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는 원동력이 된다. 선주원, 『시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2003, p.197.

작품을 읽으면서 그 빈자리를 메우는 일을 통해 시의 감상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즉 이미지를 활용한 시교육 분야는 무한히 열려있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이미지 중심의 시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은 연구영역을 남겨 놓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연구방법

문학교육에서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특히 시교육에서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므로 본 연구의 핵심으로 삼았다.

시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주로 이론적인 방법론 모색에서 점차 교과서 수록 시 분석, 시교육의 실태 조사 및 개선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신비평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실천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학습자 스스로의 활동을 격려할 수 있는 시 교수·학습 모형<sup>15)</sup>을 제시하고, 수업현장에 적용한 후 이미지 중심의 시 교육 방법이 과연 학습자의 시 감상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장은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이미지의 중요성과 시교육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미지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현재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을 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모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미지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현대시에 있어

---

15) 교수·학습 모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교실 수업 상황의 변인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의 학습 이론들이 교사 변인보다 학습자 변인을 더 고려하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학습자의 능동적 사고,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 반응 중심, 수용 미학 등 학습자 쪽을 강조하는 말들이 이러한 경향의 예들이다. 이후 본 논문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업’을 사용하고자 한다.

서 이미지 중심 시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시교육과 이미지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교육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교수·학습모형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나는 시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시 교육에 효과적인 이미지 중심의 현대 시 수업전략과 모형을 구안해 보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Ⅲ장에서 구안한 모형을 실제 시작품에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대상 작품은 7차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고등학교 『국어(상)』 대단원 ‘6. 노래의 아름다움’ 중 ‘(3)진달래꽃’을 선정하였다. 이 단원은 앞서의 두 시가들<sup>16)</sup>을 통해 시가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문학의 아름다움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의 첫 번째 현대 서정시 작품이라는 점과 시는 리듬만큼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학습자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여러 층위의 이미지 찾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시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고 시 감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sup>17)</sup>

먼저 제목에서 느껴지는 표층적 이미지와 심층적 이미지를 찾아보고, 작품 속에 형상화되어 있는 감각적, 부분적 이미지 찾기를 통하여 상상력을 발휘한 다음, 시의 지배적 이미지를 찾아보는 단계로 나아가 상상력을 확

---

16) 교과서에는 ‘6. 노래의 아름다움 (1)청산별곡 (2)어부사시사 (3)진달래꽃 (4)유리창 (5)광야’의 순으로 실려있음.

17) 시를 교육한다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시에 참여하도록 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인의 비켜서기와 상상을 독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럴듯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 쪽에서도 상상을 통해 자신의 틀, 자신의 위치로부터 벗어나서 시인의 자리에 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두고 ‘1인칭의 체험’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즉 관찰자로서 ‘바라보기’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독자가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똑바로 보기 위해 비켜섰던 시인의 위치에 상상을 통해 다시 점으로써 시인이 수행했던 ‘바라보기’를 재현하는 것, 시에 대한 3인칭으로서의 방관자에서 1인칭으로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시를 읽는 기본 조건이다. 김정우, 「시 교육과 언어 능력의 향상」, 김은전(외), 『현대시 교육의 쟁점과 전망』, 월인, 2001, p.58.

대 심화시키는 활동을 중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미지 중심의 시 수업 모형을 통해 학생들의 시에 이해도와 관심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의 결과도 파악하고자 한다.

## Ⅱ. 이미지 중심 시 교육의 필요성

### 1. 시 교육과 이미지

일반적으로 시교육은 학습자의 감정과 정서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서 문학적 즐거움과 기쁨을 환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작품의 창작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여기서 감정과 정서는 객관적인 대상이나 현상으로부터 환기되는 느낌상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지만 감정이 감각이나 지각에 의해 촉발되어 본능적이고 일차적인 속성을 띠는 것에 비해, 정서는 그 일차적 단계를 넘어선 정제의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된다.<sup>18)</sup>

이 과정에서 정서란 객관적인 상관물에 대한 체계를 가진 정신적인 구조물이므로 문학의 형태로 표현된 정서는 자기표현 활동이지만 문학이 다른 사람에게 향유된다는 점에서는 이해를 수반하게 된다. 특히 시적 정서가 독자에게 전이될 때, 독자 역시 작자가 표현한 바를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는 작자의 감정이나 시의 정서와 동일시되는데, 이러한 동일시나 일체감이 획득될때 시는 감상의 단계에 올바르게 도달하게 되며, 이것을 보통 내면화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학작품 창작의 단계에서는 작자는 정서를 표현하여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문학작품 감상의 단계에서 독자는 작자나 시의 정서를 체험하고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작자의 정서가 작품을 통하여 독자에게 전달되는 작용과정, 즉 정서 환기가 시교육의

---

18) 김대행, 「정서의 본질과 구조」, 『고려 시가의 정서』, 개문사, 1985, p.16.

중요한 목표이자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시교육이란 학습자들이 시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시적 정서를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소양과 창작을 겸비하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과 의미를 이해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sup>19)</sup>

이미지는 시어의 중요한 특질 가운데 하나다. 운율과 함께 시의 대표적 구성원리인 이미지는 언제나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고 사물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시가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미지를 통하여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며 이미지는 관념과 사물이 만나는 곳이다. 이미지는 심리학적 현상인 동시에 문학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신체적 지각·기억·상상·꿈·열병 등에 의해 마음속에 생산될 뿐 아니라 언어에 의해서도 생산되기 때문이다.<sup>20)</sup>

현대문명은 모든 정신영역까지 시각화하고 양적 단위로 만드는 시각형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현대시에 있어서도 이미지즘 시운동을 중심으로 시의 회화성이 전에 없이 강조되고 이미지가 문학적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미지가 없이 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시에서 언어는 곧 이미지가 되기 때문이다.<sup>21)</sup>

---

19) 김대행,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199.

20) Alex Preminger(ed),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p.363~370. "이미지는 신체적 지각에 일어난 감각이 마음 속에 재생된 것이다.(중략) 한때 지각되었으나 현재는 지각되지 않는 어떤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경우나, 체험했던 것들이 마음속에 무방향으로 표류하는 경우나, 상상력에 의해서 지각 내용을 결합하는 경우나, 꿈과 열병에서 나타나는 환각 등의 경우처럼 신체 지각이 아니라도 마음은 이미지를 역시 생산할 수 있다."

21) 김준오, 『시론』, 1999, p.157.

이미지는 이미지즘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1912년부터 1917년경까지 일단의 영미 시인들이 일으켰던 이미지즘 시운동은 흄, 에즈라 파운드, 애미 로웰 등이 주도하여 시에서 이미지의 제시에 최대 역점을 두고 시를 쓰고자 하였다. 그들이 제시하는 시작(詩作) 원칙은 일상 언어를 사용할 것, 새로운 리듬을 창출해 낼 것, 주제의 선택은 절대로 자유롭게 할 것, 심상을 제시할 것, 견고하고 명쾌한 시를 만들어 낼 것, 집중, 집약을 위해 노력할 것<sup>22)</sup> 등으로서 이미지스트들의 언어는 아주 실험적인 것으로 짧은 기간의 운동이었지만 그 후 심상에 대한 관심이 보편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미지즘 운동이 심상의 제시 이외에는 어떤 주제의 전개에도 무관심하였고 어떤 소재라도 그 심상만 제시하면 시로 간주한 것, 사물의 표면이 곧 의미라고 본 점 등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23)</sup>

그렇지만 시 작품을 밝힐 때 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이미지로서 시 세계는 이미지와 이미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조성된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것이 시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그 작품 속에서 독특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이미지를 통해 재현되며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24)</sup>

22) 김용직, 『현대시원론』, 학연사, 1990, pp.79~80.

23)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001, pp.275~276.

24) 윤석산, 『현대시학』, 새미, 1996, pp.372~377에서 밝힌 이미지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시의 의미를 육화하는 기능 ②대상을 모방적으로 재현하는 기능 ③새로운 사물과 관념을 창조하는 기능 ④독자의 자율적 해석권을 확대시키는 기능 ⑤전체 의미를 하나로 수렴하거나 확대하는 기능 ⑥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 등이다.

장도준, 『현대시론』, 태학사, 1995, p.142에 의하면 이미지의 기능은 ①산문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관념과 정서를 전달하는 기능 ②정서환기의 기능 ③이미지가 강렬하고 신선한 인상을 주어 독자의 인식 세계를 강하게 자극하는 기능 등이다.

문덕수, 『시론』, 시문학사, 1993, pp.238~248에 의하면 이미지의 기능은 ①감각(사물의 구체적 묘사, 즉 언어에 의하여 사물의 감각적 성질을 제시하는 것 ②정서(정서환기)

이미지는 보통 심상 또는 상, 영상 등으로 번역되며, 복합적 심상으로 또는 문맥에서의 기능적 측면에서 이미저리(imagery)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요즈음은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거의 상식이 되었고 이미지보다는 이미저리라는 용어가 더욱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25)</sup>

실제로 시작품을 전개할 때 시인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독자들이 효과적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 시인들은 이미지를 빌려오고, 문맥을 구성하고 작품전체를 조직한다. 이때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미지이며 이것이 조직화되어 시의 문맥을 복합적으로 떠받치게 하는 것이 이미저리라고 구분할 수 있다.<sup>26)</sup> 결국 이미저리는 개개의 이미지로의 분석이 가능하고, 이미지는 작품에서 유기적으로 구조화되어 이미저리 차원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시작품을 대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관계가 형성된다. 한편의 시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느낀 이미지들이 이미저리로 묶여져서, 시 속에서 나타난 체험의 공간이나 정서들이 독자의 지난날의 체험 속에서 유사한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아, 만약 유사한 것이 있다면 이때의 정서를 재생시켜 감동할 수 있을 것이고, 없다면 독자 나름대로의 상상력의 공간이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지→이미저리→상상력<sup>27)</sup>이라는 과정이 생성되고 이것은 시를 창

---

③사상(사상의 육화-여러 가지 사상을 구체적 사물의 제시에 의하여 정서적, 사상적 등 가물로 표현) 등이다.

프라이는 제재를 명확히 드러내고, 우리의 내면세계를 자극하고,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여 시를 정서와 연결시켜 주는 구실을 한다고 보고 이미지를 상징과 그 모태라 볼 수 있는 신화해석의 각도에서 문제삼고 있다.

루이스는 신선미, 강렬성, 환기력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25) 이런 견해는 이미저리는 용어를 지나치게 거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미시적으로 사용하면 개념의 혼란이 생긴다고 보아 등장한 것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미저리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개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것들이 유기적, 구조적으로 연결된 다발을 이미저리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다. 이승훈, 『시론』, 고려사, 1970, p.99.

26) 유종호·최동호, 「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문학』, 1995, p.225.

27) 칸트는 상상력을 대상의 현전 없이도 그것을 직관에 표상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재생

작하는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이미지와 이미저리가 상상력과 서로 결합되어 새로운 감각과 사물에 대한 정서를 창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미지와 상상력은 어원상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sup>28)</sup> 상상력은 본래 어떤 대상을 대했을 때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미지의 기억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상력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그 범위와 기능이 한결 폭넓게 규정되어 인간의 창조적 정신 기능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상상력은 이미지를 모방하고 재생시키고 재현실화시키는 것을 무한히 반복한다. 따라서 상상력의 의미는 작품 창작에서 나타나는 창조적 능력만이 아니라 시 텍스트에 대한 감상 능력이나 해석 능력으로도 인식되어야 한다. 즉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사용되는 장치의 의미를 파악하고 메시지를 해석하는 능력인 것이다. 이것은 상상력이 단순히 정서적 반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적 능력, 구성적 능력을 의미한다<sup>29)</sup>고 하는 개념과도 부합하는

---

적인 상상력과 생산적인 상상력으로 구분한다. 이미 보았던 상을 기억 속에서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선이라든가 원이라든가 하는 상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근원적인 상상력, 즉 생산적 상상력이다. 생산적 상상력에는 직관과 지성이 작용한다. 직관은 공간적 시간적인 면을 덧붙이고 지성은 규칙을 제공, 양자의 가능한 경험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상상력으로 변형된다. 김혜영, 「이미지의 작용방식과 상상력 교육」, 『국어교육』 제105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1, p.50.

28) 바슐라르(G.Bachelard)는 어떤 특별한 물질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동인으로서의 상상력을 설명하고, 대상에 대한 인간의 가치 부여작용으로서의 상상력과 이미지를 추동하는 힘으로서의 상상력에 주목하고 있다. 윤여탁, 「문학교육에서의 상상력의 역할 - 시의 표현과 이해 과정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3호, 한국문학교육학회, 1999, 여름, p.6.

29) 문학적 상상력은 언어를 매개로하는 언어적 상상력이다. 이것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인식적 작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에 대한 통일적 전망을 가능케 하는 고차원적 정신능력이다. 또한 문학이 요구하는 상상력은 비록 이성과 정서라는 두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으나 이성도 아니도 정서도 아닌 구성적 능력으로서 코울리지가 말한 공상과 구분되는 진정한 상상력을 이르는 것이다. 손은정, 「현대시 감상 교육방법 연구-상상력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p.14~15.

것이다.

우선 시를 창작하는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직접 체험했거나 독서를 통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심리적 충격에 의해 심각했던 일들이 일단은 기억 속에 사라졌다가 다시 어떤 충격이나 사라지기 전과 유사한 체험으로 인하여 재생되고 새롭게 해석되어 나타나는 것이 시적 이미지다. 이때에 새롭게 나타난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원동력이 바로 시적 이미지다. 이러한 상상력에 의하여 제시되는 이미지는 하나하나씩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미지가 서로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sup>30)</sup>

즉,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이며, 사물이 제공하는 느낌을 마음속에 비슷한 형태로 되살려 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언어로 감각체험을 재생하므로 우리의 모든 감각 기관이 동원되며 시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형태인 이미지로 독자들에게 제시될 뿐이며 독자들은 기존에 습득된 자신의 경험을 조화시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파악하게 된다.

문학적 용법으로서의 이미지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세가지가 있다. 첫째, 이미지는 축자적 묘사에 의하건, 인유에 의하건 또는 비유에 사용된 유추에 의하건 한 편의 시나 기타 문학작품 속에서 언급되는 감각·지각의 모든 대상과 특질을 가리킨다. 가령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았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장만영, <달·葡萄·잎사귀>중에서)에서 감각적 대상인 ‘달’과 감각적 특질인 ‘향그럽다’는 모두 이미지가 된다. 둘째, 더욱 좁은 의미로 이미지란 시각적 대상과 장면의 요소만을 가리킨다. 셋째, 가장 일반적으로 비유적 언어, 특히 은유와 직유의 보조관념을 가리킨다. 신비평을 비롯한 최근의 비평은 이런 의미에서 시의 본질적 요소로서 그리고 시의 의미와 구조와 효과를 분석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sup>31)</sup>

---

30) 양왕용, 『현대시교육론』, 삼지원, 1997, pp.183~184.

시의 이미지를 포괄적 관점<sup>32)</sup>으로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진다.<sup>33)</sup>

첫째, 지각적 이미지가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이미지를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된 것으로서 시각(명암, 선명도, 색채, 동작 등), 청각, 후각(향기, 악취 등), 미각, 촉각(열기, 냉기, 감촉 등), 신체 조직기능(심장박동, 혈압, 호흡, 소화 등의 인식) 그리고 근육운동(근육의 긴장과 이완 등) 등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떤 시인이든 그가 즐겨 사용하는 특정한 감각적 이미지가 있으며 자신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이미지화 방식을 알아냄으로써 시를 대할 때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독자들을 고무시켜 심미적 상상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장희의 「봄은 고양이로소이다」에서 느낄 수 있는 촉감적인 이미지,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느낄 수 있는 근육감각적 이미지, 김영랑의 「동백꽃에 빛나는 마음」에서 읽을 수 있는 촉기서린 빛의 감각, 김광균의 「땃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들은 각기 시인들의 독특한 개성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둘째, 비유적 이미지가 있다. 이것은 제유, 환유, 직유, 은유, 의인화, 풍유 등 여섯 가지로 대별되며, 좀 다른 성질을 지닌 것으로 상징이 있다. 이들 비유들은 각각 말해지고(비유물), 의미하면서(실체) 언어장치에 담게 되

31) 김준오, 『시론』, 1999, 삼지원, pp.158~159.

32) 현대문학사편, 『시론』, 현대문학, 1989, pp.52~63을 참고함.

33) 이미지의 유형으로 구인환(외)는 ①감각적 이미지(sensus image)는 시각을 주축으로 한 감각기관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우리의 머리 속에 그려지는 그림, ②관념적 이미지(platonic image)는 이미지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관념을 형상화하는데까지 나아가는 이미지, ③형이상학적 이미지(metaphysical image)는 관념과 정서에 이바지하기보다는 이미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이미지 등으로 분류하였고, C.D.Lewis는 기능적(functional) 이미지, 장식적(decorative) 이미지로, N.Freidman은 정신적(mental) 이미지, 비유적(figurative) 이미지, 상징적(symbolic) 이미지로 분류하였으며, 김춘수는 서술적(descriptive) 이미지 또는 묘사적 이미지와 비유적(metaphorical) 이미지, 김준오는 상대적 이미지와 절대적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는데, 비유물이든 실체든 아니면 둘 모두 이미지를 내포하게 마련이다. <그 여자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의 눈동자>(실체)와 <밤하늘의 별>(비유물) 사이에 형성되는 직유는 <그 여자의 눈동자>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구체화시킨다.

직유와 은유가 가장 보편적인 비유로서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사물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때 남다른 통찰력이 발휘되는 ‘차별성 안의 유사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미지의 참신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며 이미지의 진부함이란 이미 되풀이되어 사용된 낡은 이미지를 사용할 때 부정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일 것이다.

셋째, 상징적 이미지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이미지가 한 작품이나 한 시인의 작품 전체 혹은 문학적 전통, 시대적 경향 속에서 주도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폭넓은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로서 은유나 직유, 비유적 표현에 의한 이미지가 아니므로 취의는 매개어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이미지다.

예를 들면 카프카의 『변신』에서의 ‘변신’이나 한용운의 시에서 ‘님’, 혹은 신석정의 시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의 ‘그 먼 나라’, 황석우의 시 「碧毛의 猫」에서의 ‘愛’는 하나의 관념적인 의미로서의 상징은 될 수 있어도 감각적 이미지는 아니다. 상징적 이미지는 그 이미지 속에 관념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관념도 배제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절대적 이미지와는 구별되고 또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와도 구별된다. 왜냐하면 상징적 이미지가 관념의 내포적 폭을 다양하게 갖는데 비하여 알레고리는 관습화, 단순화된 관념적 의미와 1:1로 대응된다는 점에서 또한 구별된다. 이 습우화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추상적 의미를 지시하는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시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분석,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인의 경험, 취미, 기질 등을 추측하고 그의 무의식적 내면세계, 세계관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읽어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시의 어조, 분위기, 색조 등을 밝혀냄으로써 시를 바르게 해석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sup>34)</sup> 즉 이미지 패턴들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작가나 시에 관한 사실들을 드러내는가를 중요시 하는데 그 기본적인 가정은 반복되는 이미지가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 패턴은 작품 자체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문학작품과 신화 혹은 그 둘레 모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징적 이미지는 단일한 감각적 이미지나 비유적 이미지가 아니라 한 시인이나 작가의 작품 전체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 패턴이나 이미지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며, 나아가 원형적 이미지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시에서 이미지는 개별의 독립된 시어나 어구, 더 나아가서 비유로만 규정할 수 없는 시 전체의 문맥 속에서 유기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성질의 것<sup>35)</sup>이다. 그러므로 시 교육 현장에서는 단편적, 주입식 교육이었던 부분적 이미지 찾기와 대입하기가 아니라 한 편의 시를 놓고 이미지를 파악할 때는 시인과 작품, 시대적인 상황에 전체적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의 감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2. 현대시의 이미지 교육의 현황

---

34) 장도준, 『현대시론』, 태학사, 1995, pp.174~176.

35) 장도준, 위의 책, p.142.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이미지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문학 교육과 시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항상 읽는다. 물론 국어나 문학수업시간을 할애하여 읽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읽곤 한다. 이것은 학교의 문학교육이 분명 개인의 독서행위(문학작품 감상)에 하나의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가 된다. 이런 모델이 되는 문학수업은 학습자의 개인적인 문학작품의 향유에 진정한 가치를 주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가치란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학교육은 문학 안에서 문학과 더불어 즐기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세계를 인식하며 현실을 상상력으로 초월하여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문화의 교육이다.<sup>36)</sup> 따라서 문학교육은 문학작품의 독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확인과 자아와 세계 사이의 융화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경험(체험)으로서의 문학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문학 또는 시를 배우고 접하지만 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은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국어나 문학 과목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개인적으로 시를 멀리하거나 시를 배우는 학습방법이 잘못되어서 일찍부터 흥미를 잃는 경우가 있다. 또 학교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시험을 보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외운 것도 시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였다. 다음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시의 세계가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져서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이거나 현재적인 경험이나 삶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36) 구인환(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p.25.

이 밖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시라는 문학은 최고의 언어적 형상물로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로는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편의 시를 놓고 교사와 학생이 상호 고양될 공감의 폭을 나누어 갖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미지, 운율, 비유, 상징, 어조, 수사의 기교, 정서, 부분과 전체의 구조적 관련 등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면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 적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이 시교육 현장이었고 학생들 각자의 체험에 따라 작품을 수용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sup>37)</sup>

박호영은 이미지를 신체적 지각에 의해 산출된 감각을 마음속에 다시 재생시켜 놓은 것으로 정의하고, 이 신체적 지각의 과정이나 마음속에 재생되는 과정은 얼마든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것이 개인의 상상력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sup>38)</sup>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시의 이미지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는 시들의 이미지, 예를 들어 김수영의 ‘풀’에서의 이미지라든가, 윤동주의 ‘서시’에서 ‘밤’의 이미지가 머리 속에 고정되어 떠오르는 것을 보면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의 모색을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시작품의 전체적인 의미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 시에 나타난 심상의 종류를 파악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개별적 요소로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9)</sup>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sup>40)</sup> 아래 교수·학습 방법<sup>41)</sup>의 변화가

37) 윤여탁, 『시교육론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134.

38) 박호영, 「비유와 이미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김은전(외), 『현대시 교육론』, 시와시학사, 2000, pp.285~289.

39) 김지영, 「현대시 이미지 교육방법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40)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 목표(교육인적자원부, 1999)는 다음과 같다.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심지어 교사들도)이 가장 어려워하고 난해하게 받아들이는 문학의 분야로 ‘시’를 지적한 것<sup>42)</sup>과 김혜란<sup>43)</sup>에 의하면 학생들이 시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심상, 비유, 상징 등의 요소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 아직도 교수·학습방법이 교사의 설명과 학생들의 기계적인 외우기에 의존하고, 시험을 위해 공부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이론은 분명 학습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시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지식 차원에서 외우게 할 것이 아니라 이해와 감상을 통해 느껴야 할 내용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음 내용은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도와 시 교육에 있어서의 이미지의 중요도를 파악해 보고자 설문조사<sup>44)</sup>를 실시해본 것이

---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양상을 익혀, 다양한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41)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학영역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고시, 1999)

(가)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킨다 (나)지식, 기능, 태도에 관한 내용을 균형있게 지도하되, 문학지도는 문학작품의 심층적 감상을 통한 심미적 상상력과 건전한 심성을 계발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하되, 특히 개별문학작품을 학습자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인생관 및 세계관 형성을 돕는 학습활동을 강조한다. (다)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세계, 필요와 요구, 개인차, 지역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 및 전통을 고려하여 교과서 이외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하되, 교육과정의 내용 목표 성취, 학습자의 흥미, 발달단계, 경험 세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구성·활용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국어 자료를 활용하되, 특히 문학작품을 폭넓게 읽을 수 있는 기회 확충에 유의한다.

42) 김은전, 「시교육의 성격과 목표」, 김은전(외), 앞의 책, p.15.

43) 앞의 논문.

44) 조사대상 : 부산시 해운대구 모 고교생 360명(12반), 조사기간 : 2005. 2. 14-18에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지 문항은 김혜란, 「시의 교육방법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조상휘, 「시교육의 효율적 방안 연구」, 순천향대 교육대학원, 2000, 서옥선, 「학습자 중심의 시

다. 조사는 이미지 중심의 시 수업 모형을 적용하기 전의 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이미지 중심 시 수업 모형을 적용한 후의 학생들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소의 시차를 두고 동일한 문항으로 두 번 진행하였다.

먼저 이미지 중심의 시 수업 모형을 적용하기 전의 학생들의 반응이다.

### <조사항목과 문항에 대한 응답률>

【표 1】 설문1>

| 내용                              | 보기                       | 응답수(응답률)    | 비고                                    |
|---------------------------------|--------------------------|-------------|---------------------------------------|
| 이제까지 시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 ①주제 파악하기                 | 59명(16.3%)  | 학생들은 시교육에서 시의 표현법과 시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함 |
|                                 | ②시어 이해하기                 | 113명(31.4%) |                                       |
|                                 | ③내용 감상하기                 | 52명(14.4%)  |                                       |
|                                 | ④리듬(운율), 비유, 이미지 및 상징 파악 | 136(37.8%)  |                                       |

【표 2】 설문2>

| 내용                                   | 보기     | 응답수(응답률)    | 비고                                       |
|--------------------------------------|--------|-------------|------------------------------------------|
| 시교육에서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매우 크다 | 52명(14.4%)  | 학생들은 시교육에서 이미지의 비중이 크다고 응답률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
|                                      | ②크다    | 142명(39.4%) |                                          |
|                                      | ③적다    | 126명(35.0%) |                                          |
|                                      | ④매우 적다 | 40명(11.2%)  |                                          |

【표 3】 설문3>

| 내용           | 보기        | 응답수(응답률)   | 비고          |
|--------------|-----------|------------|-------------|
| 시의 ‘이미지’는 시의 | ①도움이 많이 된 | 80명(22.2%) | 이미지가 시의 이해나 |

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2000, 김지영, 「현대시 이미지 교육방법 연구-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구화, 「학습자 중심의 고등학교 시 교육 방법론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를 참고함.

|                        |             |             |                                 |
|------------------------|-------------|-------------|---------------------------------|
| 이해나 감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           |             | 감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비슷함 |
|                        | ②조금 그렇다     | 107명(29.7%) |                                 |
|                        | ③보통이다       | 119명(33.1%) |                                 |
|                        | ④별로 도움이 안된다 | 54명(15.0%)  |                                 |

【표 4】 설문4>

| 내용                         | 보기          | 응답수(응답률)    | 비고                                    |
|----------------------------|-------------|-------------|---------------------------------------|
| 시의 '이미지'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의미전달       | 18명(5.0%)   | 이미지의 기능으로 상<br>상력 자극이라는 대답<br>이 가장 많음 |
|                            | ②정서의 환기     | 80명(22.2%)  |                                       |
|                            | ③시의 배경마련    | 46명(12.8%)  |                                       |
|                            | ④독자의 상상력 자극 | 216명(60.0%) |                                       |

【표 5】 설문5>

| 내용                                     | 보기          | 응답수(응답률)    | 비고                                             |
|----------------------------------------|-------------|-------------|------------------------------------------------|
| 학교에서 시를 배울 때 스스로 이미지를 찾아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까? | ①많이 해보았다    | 19명(5.3%)   | 이미지를 찾는 학습활동<br>을 스스로 하지 않았<br>다는 대답이 대부분<br>임 |
|                                        | ②조금 해보았다    | 50명(13.9%)  |                                                |
|                                        | ③거의 해보지 않았다 | 210명(58.3%) |                                                |
|                                        | ④해본적이 없다    | 81명(22.5%)  |                                                |

【표 6】 설문 6>

| 내용                                         | 보기                         | 응답수(응답률)    | 비고                                                |
|--------------------------------------------|----------------------------|-------------|---------------------------------------------------|
| 보기의 활동 중에서 시의 이미지를 찾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 ①시 낭송하기(읽기)                | 136명(37.8%) | 이미지를 파악하는 방<br>법으로 시 낭송(읽기)<br>하기에 응답률이 가장<br>높음. |
|                                            | ②작가를 알아보기                  | 46명(12.8%)  |                                                   |
|                                            | ③모방시(패러디하기)                | 65명(18.1%)  |                                                   |
|                                            | ④장르바꾸기(산문, 일기쓰기, 그림 그리기 등) | 53명(14.7%)  |                                                   |
|                                            | ⑤시어 이해(분                   | 60명(16.7%)  |                                                   |

|  |      |  |  |
|--|------|--|--|
|  | 석)하기 |  |  |
|--|------|--|--|

【표 7】 설문7>

| 내용                                       | 보기      | 응답수(응답률)    | 비고                                    |
|------------------------------------------|---------|-------------|---------------------------------------|
| 현재 본인의 시 수업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매우 높다  | 18명(5.0%)   | 시 수업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도는 그저 그렇다는 대답이 아주 많음. |
|                                          | ②조금 높다  | 51명(14.2%)  |                                       |
|                                          | ③그저 그렇다 | 249명(69.2%) |                                       |
|                                          | ④관심이 없다 | 42명(11.7%)  |                                       |

위의 설문조사는 대상이 한 학교(해운대구 소재)와 한 학년이었기에 그 결과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체적인 경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결과에 있어서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적 표현장치인 ‘리듬, 이미지, 비유, 상징 파악하기(37.8%), 시어 이해하기(31.4%)’ 등으로서, 이것은 위에 거론하였던 김혜란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여 아직도 시 교육에서 한 편의 시를 대하면서 이해보다는 부분적인 암기중심 교육의 결과라고 보여지며, 이미지 파악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중요하다(53.8%)고 응답한 학생수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46.2%)한 학생수의 비율이 비슷한 것을 보면, 분명 이미지에 대한 시교육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미지의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독자의 상상력 자극’(60.0%)이라는 대답은 이미지에 반드시 상상력이 작용하므로 시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효과적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미지 파악의 방법으로 ‘시 낭송(읽기)하기’(37.8%)에 응답률이 높으므로 시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시 작품에 가장 빠르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임을 학생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설문내용은 학생들의 시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도가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미지 중심 시 교육 모형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의

결과를 비교해 보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의 관심도와 흥미도는 그저 그렇다 (69.2%)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제7차 교육과정<sup>45)</sup>은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sup>46)</sup>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것은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자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했는가가 더 주목을 받아야 하며 교사는 원조자로서 이해하는 개념이다.

지금의 교육현실을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은 대단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학습활동은 그렇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설문조사 대상 학년이 2001년부터 즉 중학교 시절부터 계속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학습활동을 한 상태인데도 <설문 5>에 응답한 것(‘거의 해보지 않았다’와 ‘해 본 적이 없다’의 응답이 80.3%)을 보면 자기 주도적 학습은 교실에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시를 어렵고 애매하며 자신의 생활이나 경험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싫어하며, 교사들도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장르로 꼽고 있다.<sup>47)</sup> 그 이유는 제 7차 교육과정<sup>48)</sup>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어 학생들

---

45) 1997년 12월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는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의 육성’을 위하여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 교육의 충실’을 목표로 하고, 실제 학습의 장에서도 학습자의 참여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1997-15호.

46) 이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에 의하여 학생들의 내적인 발달 가능성을 강조하고, 학습활동에서 학습자의 주체적인 해석 과정을 가장 중요한 인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47) 김은전, 「시교육의 성격과 목표」, 김은전(외), 앞의 책, p.15.

48)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자의 학습 능력, 학업 성취도, 학습 양식, 학습방법, 흥미와 관심 등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학습자들의 수준별 학습을 지향하면서 개별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방법 및 자료를 제공해주어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표현을 중

의 작품도 실리고 삶과 일상생활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도 많아졌지만 학생들의 편견과 평가를 위한 시험을 전제로 한 획일적인 시 분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교육의 당위성과 방법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시교육이 아주 오랫동안 널리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하면 그에 대한 이론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방법론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시 교육에서 교사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어려운 이론이나 정신을 열거하며 학생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소외의식, 동떨어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시 이해의 기초가 되는 감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 읽기의 창의성, 자유로운 상상, 즐거움 그리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를 제대로 감상하게 하려면 의사소통이라는 관계 맥락 속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해를 통해 주체적이고 심미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시 장르는 기본적으로 단어와 이미지, 그들 단어와 이미지들이 전달하는 모든 느낌과 함축들을 동반하는 경험이다. 이에 시 감상의 한 방법으로서 이미지를 통해 작가의 창작의도를 효과적으로 파악한다면 한편의 시를 이해하기는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미지와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미지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시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이미지 중심의 교육방법을 통해 개인적 이미지를 더 크게 사회, 문화적인 이미지로 확대하고 토의나 토론학습을 통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시의 이해와 감상력은 신장될 것이다.

---

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다.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은 다양한 언어(문자 언어, 음성 언어, 시각 언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수용하고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자신의 언어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학습활동을 강조할 때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의 개별화, 인격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국어 교육적 경험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선주원, 『시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2003, p.182.

### 3.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교육의 필요성

시라고 하면 이미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는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이미지를 단순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정도로 알고 지나치거나, 그 이미지의 구체성이나 강조하고 넘어가는 것은 시의 본질과 무관한 교육으로 나아가게 만들 염려가 있다. 중요한 것은 시가 왜 이미지의 덩어리가 되는가를 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sup>49)</sup>

시를 읽거나 배우는 것은 어떤 즐거움을 깨닫는 일이다. 삶의 즐거움이든 아니면 정서적 감동에서 오는 즐거움이든 말이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시의 문면(文面)에 나타난 그대로를 감상하는데서 오는 것은 아니다. 시인이 시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한 뜻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아는 것이다. 즉 시의 이미지는 개인의 상상력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도 언어에 의해 마음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을 말하며 심상(心象)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김동환의 ‘북청물장수’에서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머리맡에 찬물을 좌—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북청물장수.’라는 구절을 보고 우리는 물장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더라도 이 시에 표현된 북청 물장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시에 표현된 상황 역시 새벽잠을 깨우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에서 느낄 수 있는 촉각적 이미지와 부엌에서 달가닥거리는 소리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를 연결시킬 수도 있다.<sup>50)</sup>

49) 김대행, 「시교육의 내용」, 김은전(외), 앞의 책, p.44.

50)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지도서, p.288.

이처럼 이미지는 언어적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독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시각이나 촉각, 청각과 같은 구체적 또는 복합적 형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이미지는 작가가 표현하는 형상이지만 궁극적으로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형상으로 작용한다.

그렇다고해서 이미지가 시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설이나 수필 등과 같은 다른 장르의 문학작품에서는 물론 일상의 언어표현에서도 나타나고, 또한 사진이나 그림, 음악, 인간의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에서도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표현 속에서 이미지는 풍부하게 구사된다. 즉 일상 언어생활에서 언어화되는 대상은 대부분 대상 그 자체보다는 그 대상의 이미지로 작용한다. 또한 비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이야기되는 일상의 표현에서도 비유되거나 상징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게 되며, 이 이미지는 대상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지를 문학의 본질인 형상성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은 문학이 곧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는 철학과 한 가지인 목표를 겨냥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인간 사유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철학과 문학이 다른 점은 추상화와 구체화에 있다. 철학은 현상의 관찰에서 그 개별성을 사상함으로써 추상화한다. 그 결과가 개념적 언어로 나타난다. 그러나 문학은 보편성을 구체적이고 특정한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철학과 마찬가지로 보편성이다. 그래서 문학은 심상으로 제시되며, 그 가운데서도 심상적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시다.<sup>51)</sup>

그러므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시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

51) 김대행, 앞의 책, p.45.

다.

첫째, 이미지는 시작품의 의미에도 관여할 뿐만 아니라 시인 내부의 관념 또는 감각을 통해 느끼거나 생각한 것 등을 암시적, 구체적으로 표현<sup>52)</sup>하여 서정적인 분위기 형성이나 주제의 형상화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둘째, 우리가 노래를 잘 외우는 것처럼 운율이 느껴지는 시를 쉽게 외운다. 즉 리듬이 시에 있어서 중요한 만큼 이미지 또한 중요하다. 단어와 이미지, 그들 단어와 이미지들이 전달하는 모든 느낌과 함축들을 동반하는 이미지 관련활동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학생들은 분명 흥미있게 수업에 임할 것이다.

셋째, 이미지는 현대시에서일수록 단일 감각의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여러 이미지들이 복합된 공감각적인 심상을 형성하고, 심리적, 심미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현대시의 이해와 감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는 어떤 글을 읽으면 마치 그림을 보는 듯 그 모습이 그려지고, 또 어떤 글은 마치 음악을 듣는 듯 그 소리가 느껴진다. 이런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들은 곧 독자의 정의적 반응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독자는 시작품을 읽으면서 글의 어떤 부분이나 기법이 자신의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여러 감각을 자극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그러한 이미지들을 문학 작품의 감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sup>53)</sup>

본 논문에서는 어떤 대상을 대했을때 시인이나 독자의 마음 속에 재생되는 감각적 형상인 이미지를 파악해 보고, 시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시 감상능력이 폭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에 따른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52) 문덕수, 『시론』, 시문학사, 1996, p.213.

53)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서』, 교학사, 2003, p.114.

### Ⅲ. 이미지 중심 현대시 교육의 전략과 방법

#### 1. 이미지 중심 현대시 수업의 전략

학생들이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단어의 의미를 알거나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또 문학적 사실이나 문학에 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더 더욱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좋은 문학작품은 사고와 이미지, 현실과 이상적 삶에 대한 예리한 관찰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sup>54)</sup> 문학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사람이나 생활을 만나 행복하거나 원치 않는 경험,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용기와 비굴, 평화와 범죄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 점차 다양한 인간의 삶을 이해하면서 익숙해져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각각의 학생들은 명백하게 다른 경험과 다른 사회적 경험을 통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이미지에 대한 이해도 학생 개인의 경험의 차이로 인해 그 수준이 달라진다. 이러한 개인차를 극복하게 위해 학생들의 경험과 가까운 이미지를 먼저 제시하여 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결과적으로 작품 감상의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활용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sup>55)</sup>을 예

---

54) 박영목(외),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2002, pp.326~327.

55) 이상구,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수학습 지도안」, 박영목, 『국어과 교수학습론』, 교학사, 2002.

로 들면, 본시 수업단계에서 문학 작품의 인지적 처리 과정에 대한 학습단계는 텍스트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습득을 위한 단계이며, 소집단 활동을 통한 의미 구성하기는 집단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공인된 의미를 구축하는 단계로 다른 구성원들이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고 동시에 자신의 사고 내용을 타인에게 의미있도록 조직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 복수 교재 학습은 교과서에 수록된 다른 작품, 필독도서 목록, 동일 작가의 작품을 컴퓨터 검색을 통한 동일 소재, 주제의 작품 등을 학생 스스로 찾아 읽고 과제를 선택하여 직접 써보는 형태의 수업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지도서에 의한 교수·학습 과정의 실제내용을 보면 현대시 3편을 학습하면서 문학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요소인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 3가지를 한 편의 시에서 모두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물론 리듬이라는 음악성과 비유적 표현에서 찾을 수 있는 함축성도 중요하지만 ‘시의 언어는 이미지’라는 말도 있듯이 시적 이미지로 한편의 시에 접근할 수 있는 형상성을 먼저 학습한다면 학생들이 시를 배움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정서적 공감과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I.A. 리차즈는 시해석의 어려움으로서 ‘이미지리 수용에 제한점이 크다’<sup>56)</sup>라고 지적하였고, 휠러가 제안하는 시해석의 기술에는 ‘훌륭한 한 편의 시는 자율적인 세계로서 이 자율성은 독자들에게 해석의 지평을 제공한다, 중심적인 의미를 향하여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되어 있는 유기체이며, 훌륭한 한편의 시는 수없이 많은 해석을 가해도 끝끝내 소멸되지 않고 독자가 다양한 의미를 읽어낼 가능성은 늘 남으며 표면적인 의미로부터 심층적인 의미를 발굴해야 한다’<sup>57)</sup>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을 세워

56) 그 외, 학생들이 시의 표면적인 측면이나 진술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시의 명백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적인 언어가 환기하는 감각적인 감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등 모두 10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구인환(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3, p.288.

57) 그 외, ‘시는 내적인 수미상관의 세계, 전체는 전체를 형성하는 부분들의 총합이 아니

보았다.

첫째, 이미지 파악의 중요성을 토대로 하여 제목에서부터 나타나는 표층적, 심층적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맛보기를 한 다음, 부분적, 감각적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학생 스스로 수업 활동에 참여함을 중요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한 편의 시를 대하면 한두 번 천천히 읽고 난 후, 제목이나 작품의 표면적, 심층적 이미지 또는 분위기를 생각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영상을 학습자가 직접 표현하거나 확대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시의 창작과정에 작가의 상상력 혹은 사고력에 의해 이미지가 창조되었다면 반대로 시의 감상 과정에서는 그 이미지를 상상해봄으로써 시에 대한 감상<sup>58)</sup>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업의 각 단계는 이미지 찾기가 중심이 된다.

이미지 파악을 위해 우선 제목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파악해 보고, 다음으로 개인 또는 모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감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 이미지가 느껴지는 다양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확대해보고 상상력의 폭을 넓혀볼 것이다. 제목과 작품의 이미지 파악이 끝난 후 이들을 관련된 의미끼리 연결하고 시인의 입장이 되어 개인 경험과 관련하여 재구성할 것이다.

둘째, 시 교육에서 이해영역과 감상영역, 그리고 창작영역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학습자의 작품에 대한 내면화 과정이 어느 한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나타날 수 없음을 인식하여 각 활동영역에 작품의 이미지형상성을 염두에 두면서 연계하여 지도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텍스트 전체에서 느낄 수 있는 이미지 상상과 해석을 통해 작품의 감상이 끝난 후 감상의 확대 심화를 거쳐 이미지의 통합 및 정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창작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학습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

---

다, 훌륭한 방법에 의해서만 가장 쉽게 해석되고, 가능한 한 한 축어적으로 읽어야 하며, 시인이 제공하는 도움말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등이 있다. 위의 책, pp.289~290.

58) 양왕용, 『현대시교육론』, 삼지원, 2000, p.200.

해 학생들은 시 교육이 이해와 감상, 창작의 영역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논문의 목적이 시의 ‘감상’능력 신장에 있으므로 이해나 창작영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고자 할 때 중점을 두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층위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작품에 대해 먼저 선행학습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것은 시 수업이 인지 학습과는 달리 단순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내면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정서와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므로 수업과정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학습자가 시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했는지의 여부도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의견을 교환<sup>59)</sup>하는 방식, 즉 교사가 의문을 제시하면 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응답하면서 시를 이해하고 감상을 확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로써 수업의 중심은 학생이며 교사는 어떤 사실이나 의미를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이 된다. 물론 문제제기는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고 나아가 학습자의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도 포함된다.

## 2. 이미지 중심 현대시 수업의 모형

---

59) 채형렬,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을 통한 시 교육 연구」, 『전남국어교육 제8집』, 전남중등국어교육연구회, 2001, pp.198~199.

시를 포함하고 있는 문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입시경쟁이 치열하고 정보매체의 홍수에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시 교육은 중요하며 특히 전문 교육을 받기 이전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시적 체험을 통한 감수성의 계발은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사회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60)</sup>

문학에 관한 수업모형은 크게 일반절차 모형<sup>61)</sup>과 목표별 모형<sup>62)</sup>이 있다. 목표별 모형 중 특히 ‘창의적 사고의 수업모형’은 문학교육과 가장 친밀한

60) 시 교육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존재임을 언어적으로 자각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시 교육은 언어의 본질과 시의 특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는 교육이며, 그 교육의 결과로 자신의 언어와 삶,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 등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이해에 이르게 하는 교육이다. 아울러 시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보는 상상을 하게 함으로써, 능동성과 창의성을 가진 인간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정우, 「시 교육과 언어 능력의 향상」, 김은전(외) 『현대시 교육의 쟁점과 전망』, 월인, 2001, p.63.

61) 다시 두 가지, 글레이저의 4단계 모형과 한국교육 개발원의 수업절차모형으로 구분한다. 글레이저의 4단계 모형은 ①수업목표 ②투입행동 진단 ③학습지도 ④학습 성과 평가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다분히 개별화 처방에 중점을 둔 수업절차로 받아들여진다.

1970년대 후반 시도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시수업 체제 수업모형은 수년간에 걸친 현장 적용을 통하여 일반화시킨 수업절차모형이다. 이는 종래에 일선학교에서 적용하던 <계획-지도-평가>의 3단계 모형의 절차과정을 변형, 세분화시킨 것으로, 다음 5단계의 절차로 모형화되어 나타난다. <계획→진단→지도→발전→평가>과정은 학교현장의 제약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실성, 적용 가능성, 그리고 개선의 수준 등을 감안한 것이어서 현장에서의 효과성이 높이 평가되었으나, 주로 초등학교 중심이어서 교과별 내용주의가 강한 중등학교에서는 그 수용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였다. 구인환(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3, pp.274~275.

62) 목표별 모형은 각 학습과제를 학습하는데 요구되는 학습조건 또는 학습과정의 차이에 따라 그 수업의 고유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모형화하려는 것으로 일반절차모형이 다소 도식적인 틀을 지닌 것이라면 이 모형은 수업설계자의 창의적 의도와 수업전략 집종의 효과가 잘 드러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창의적 사고모형, 태도모형, 인지 기능 모형, 개념 습득 모형, 상호작용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구인환(외), 위의 책, pp. 274~279.

관계가 있다. 이 모형에서 대상 및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 세계를 파악하게 되는 감상활동은 그 자체가 열려진 수용태세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감상의 개별화, 감상결과의 전이, 감상관계의 계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업모형을 고려하면서 시장르의 특성을 감안한 시 수업 모형에는 구인환(외)의 시 수업 절차 모형<sup>63)</sup>, 경규진의 반응중심 수업모형<sup>64)</sup>, 권혁준의 통합적용에 의한 모형<sup>65)</sup> 등이 있다. 이들 모형은 기존의 교사중심, 분석 중심 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 본질과 학습자 중심의 모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구인환(외)의 경우 내면화단계의 설정에 문제를 보이고 있고, 경규진의 경우 교사의 역할이 거의 배제되어 있는 문제를 드러낸다.

---

63) 구인환(외)의 모형은 KEDI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KEDI 모형은 1. 계획→ 2. 진단 → 3. 지도 → 4. 발전 → 5.평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인환(외)의 모형은 1. 계획 → 2. 진단 → 3. 지도 → 4. 평가 → 5. 내면화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문학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 단계를 내면화 단계라 하고 평가 단계와 순서를 바꾸고 있다. 내면화 단계를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그 단계를 평가 이후로 설정한 것은 감상의 연속성 측면에서 세밀한 검토와 검증을 필요로 한다. 박영목(외), 『국어과 교수학습론』, 교학사, 2002, pp.359~362.

64) 1단계 :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 → 반응의 형성 → 2단계 :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 → 반응의 명료화 → 3단계 :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관련 → 반응의 심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형은 목표 모형이라는 점, 계획, 평가와 같은 단계는 생략하고 지도 단계만을 모형화하고 있다는 점, 학생의 반응 국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사의 역할 즉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문학지식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혁준,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1997, pp.257~270.

65) 이 모형은 신비평과 독자반응이론을 통합 적용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모형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전체적인 수업구조는 <1.계획 → 2.진단 → 3.지도 → 4.평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 단계에서는 작품에 대해 <전체적 접근 → 부분적 접근 →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 모형은 구인환(외)의 <계획 → 진단 → 지도 → 평가 → 내면화>의 전체적인 틀을 따르되, 내면화의 단계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내면화 단계가 특정한 어떤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전체적인 수업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내면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권혁준, 「주체적인 시읽기를 위한 시교육 방법 연구」, 『어문연구』, 제96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7.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수업모형의 유의점과 장점을 고려하고, 앞서 논의된 시교육에서 이미지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시 교육에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수업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8】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수업 모형

| 영역 | 단 계           | 활 동                                                                                                               |
|----|---------------|-------------------------------------------------------------------------------------------------------------------|
| 이해 | 텍스트 맛보기       | 1. 전체적 느낌 형성하기<br>(1)제목 상상하기<br>(2)제목에 숨어있는 전설과 설화 찾기                                                             |
| 감상 | 1차 텍스트 접근단계   | 2. 소재의 이미지 느끼기<br>(1) 노래 듣고 이미지 상상하기<br>(2) 제목의 심층적 이미지 상상하기                                                      |
|    | 2차 텍스트 감상단계   | 3. 시적 상상력 기르기<br>*지배적 이미지 찾기(꼼꼼하게 텍스트 읽기)                                                                         |
|    | 3차 텍스트 감상의 심화 | 4. 시적 체험의 확대<br>(1)낭독하면서 이미지 떠올리기<br>(2)시인의 다른 작품과 이미지 비교해보기<br>(3)감각적, 부분적 이미지 찾아보기<br>(4)표층적, 심층적 이미지로 생각그물 만들기 |
| 창작 | 이미지 통합 및 정리   | 5. 창조적 구성<br>(1)고쳐쓰기, 바꿔보기를 통해 이미지 변화 파악<br>(2)대중가요 가사 찾아보기<br>6. 정리하기<br>: 시의 특성에 따라 작가의 현실인식과 시대 상황과 연관지어 지도    |

이 모형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각 활동의 이론적 배경과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 작품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제목이다. 시를 읽기 전에 학생들에게 작품의 제목만을 보고 이미지와 의미 시상전개 등을 상상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을 형성하게 되고 보다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것이다. 즉, 이 단계는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학습 독자가 접하게 될 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단계이다.

1-(2) : 전설과 설화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조상들이 겪어온 다양한 체험, 사상, 감정, 지혜, 용기, 가치관 등이 융해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상상력을 기름과 동시에 교훈, 재미까지 줄 수 있다.

즉 이 단계는 작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대하기 전에 학습 독자들은 스스로의 미적 관념으로 자신의 체험과 지식을 가지고 작품 세계에 접근하면서, 나름대로의 기대 지평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즉 시가 어렵거나 지겨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세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노력하는 단계이다.

2-(1) : 시는 원래 노래와 하나였다. 시가(詩歌)란 말이 있어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래와 하나였기 때문에 시는 음악성을 중시한다. 음악성 즉 리듬은 우리 인간의 삶이나 이런 삶 속에서 접하는 자연의 순환원리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가 문학의 언어이면서 생활의 언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줄글로 쓰인 산문을 외우는 것보다 리듬이 있는 시를 외우기가 비교적 수월하며 시를 외우기보다는 가락에 얹혀 있는 노래 가사를 익히기가 쉬우므로 옛사람들은 천자문을 가락에 맞추어 외웠고, 어린시절 구구단을 배울 때 역시 리듬에 맞추어 외운 기억이 있을 것이다. 즉 이 단계는 시적 이미

지를 음악성과 결부시켜서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수업분위기를 활기있고 부드럽게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sup>66)</sup>

2-(2) : 제목의 표층적 이미지와 숨어있는 전설이나 설화를 통해 텍스트 맛보기를 한 다음 텍스트 접근 단계로서 심층적 이미지를 찾아보는 단계이다. 작품 속에는 반드시 주도적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사물이 있다. 본 작품에는 제목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제목에서 느껴지고 암시하고 있는 심층적, 이면적 이미지를 찾아서 해석하면 작품의 이해에 쉽게 다가갈 것이다.

3 : 학생들은 텍스트 제목을 통해 시의 맛보기와 텍스트 접근을 한 다음 관련된 노래를 듣고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미지를 찾아보는 전단계로서 지배적 이미지를 그제 느껴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인이 시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한 의미를 상상력을 동원하여 아는 것이므로 독자(학생)들은 어떻게든지 시에 표현된 시인의 복잡한 정서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시를 처음 접할 때 학생들로 하여금 시에 대해 충분히 사색할 기회와 여유를 주어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 시의 이해나 감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4-(1) : 시의 감상에 있어 낭독<sup>67)</sup>은 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가장 빠

---

66)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 지도서. pp.287~288.

67) 시 지도에서 낭독의 중요성은 시가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장르적 특성에서 강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에서 한걸음 나아가 텍스트를 감상하고 비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낭독은 산문의 경우 단순한 발음지도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낭독은 혼자 소리내어 읽는 음독이 아니며, 낭독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혼자든지 혹은 다수든지 있는 법이다. 이 경우 원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역할은 낭독자가 한다.

른 길이다. 시를 낭독하는 동안 시의 분위기, 이미지, 리듬을 파악할 수 있고 시어의 구체성을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의 낭독은 문자 언어를 단지 음성언어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낭독 자체가 작품에 대한 해석(oral interpretation)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sup>68)</sup> 작품의 낭독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영상 매체의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녹음, 녹화 테이프와 소리와 영상 기기를 활용하면, 학습 흥미의 유발을 물론 여러 면에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낭송하는 모습과 소리를 녹화, 녹음하여 자기 평가와 피드백 효과를 거두거나 전문 낭송인의 목소리와 모습을 전범으로 하여 수준 높은 낭송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sup>69)</sup>

4-(2) : 문학교육의 가치 목표가 인간의 이해로 설정되어 있고, 문학작품의 수용자인 학생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보면 작가의 다른 작품과의 비교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은 청년기로 들어가는 시기 즉 성인들의 사고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인지구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심의적 경향에서 강한 자기 중심성을 갖고 논리적 사고가 만능이라는 대담성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에 자기 중심성이 강한 수용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작가의 다른 작품과의 이미지 비교, 해석활동을 통해 작품 이해의 폭을 넓혀주

---

다른 글의 낭독이 이러한데 시 작품의 낭독행위는 일종의 작품에 대한 해석 행위로 역시 듣는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를 낭독하는 동안 시의 전체적 분위기와 리듬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막연하지만 좋은 낭독, 즉 시낭송보다 지도교사의 모범독이나 낭독 전문가의 낭송을 들은 뒤 학생들에게 그에 따른 연습의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다. 합독은 정해진 법이 없고 합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낭독법을 정하고 낭독에 따른 동작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학생들은 공동 사고를 통하여 시의 특색을 막연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자기 과시 심리를 억제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학생들도 도움을 받아 활동적이게 만드는 장점을 갖고 있다. 양왕용, 앞의 책, pp.100~102.

68) 구인환,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p.251.

69) 김봉균, 「시 낭송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은전(외), 앞의 책, p.322.

고 유연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sup>70)</sup>

이 단계에서는 작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보다 작가가 많이 사용하는 소재나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단계이다.

4-(3) :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감각은 수용기관 즉 감각기관의 차이에 따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으로 분류하고, 감각의 정도, 감각의 영역, 감각의 지속시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의 감상이나 분석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제목을 통해 텍스트에 접근하여 낭독,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시에서 감각적, 부분적 이미지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게 한다. 텍스트 감상의 심화단계로서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 작품에서는 어떠한 이미지가 나타나며 각각의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각 이미지가 주는 느낌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한다.<sup>71)</sup>

또한 그 이미지들 중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찾아보게 하여 바로 앞 단계에서 그저 전체적으로 느끼기만 했던 지배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하여 인식하게 한다.

이때, 단순히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등을 찾아내는 문제 풀이식 지도보다는 작품에 나타난 아름다운 정경에서 얻은 감동을 발표시키는 등 교사의 질문 기법에 의한 수업 진행이 되어야 한다.

---

70) 작가론이 문학교육에 도움을 주자면 전기비평의 형태가 되어 작품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전기비평은 작품의 구조분석만으로 드러나지 않던 의미나 이미지가 작가의 삶과 작품을 연관지음으로써 보다 분명히 밝혀지게 하는 것이다. 구인환(외), 앞의 책, p.407.

71) 일상 언어 생활에서 언어화되는 대상은 대부분 대상 그 자체보다는 그 대상의 이미지로 작용한다. 또한 비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이야기되는 일상의 표현에서도 비유되거나 상징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게 되며, 이 이미지는 대상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원리로 작용한다.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지도서, p.289.

4-(4) : 한 편의 시에 나타나는 각 장면의 아름다운 감각적 이미지는 단순한 감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감각과 감정의 적절한 조절 상태를 유발하여 학생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줄 것이다. 물론, 이 단계를 위해서는 시 작품과 관련된 체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을 공감하게 하는 교사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 단계에서 상상했던 제목의 표면적, 심층적 이미지, 각각의 부분적, 감각적 이미지, 지배적인 이미지들 가운데 서로 연관되는 이미지들을 하나의 의미망으로 연결지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그물 만들기는 일정한 주제나 이미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추구해 나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대하거나 정리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자기가 생각한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개념을 나열하거나 구조화하는 작업으로서 이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관련된 단어들을 다양한 함축적 표현이 가능하도록 엮어보도록 한다. 개념이나 소재의 나열이나 구조화의 경우에는 일정한 내용적 순서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단어들을 계기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관련된 단어들을 다양한 함축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엮어보도록 한다.

5-(1) : 작품의 아름다움과 의미는 작가가 의도한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심미적 취향과 가치관과 활발한 대화를 거쳐서 독자의 내면에서 새로이 재구성되는데 이를 독자의 수용을 통한 창조적 재구성이라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수동적인 감상자의 위치에서 능동적인 창작자의 위치로 옮겨 가는 것이다.

고쳐쓰기 즉 패러디는 특정 작가의 시의 문체나 운율을 모방하여 풍자화하거나 조롱하기 위해 꾸민 익살스러운 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패러디 작품은 때로는 악의가 개입되지만 시 교육에서의 패러디는 자신의 느낌이

나 감상을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패러디는 작품 원문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교육의 효용성을 점검하는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리고 고쳐쓰기 활동은 원래의 시 형식과 내용을 원형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창작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즉 학생들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킬 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sup>72)</sup>

5-(2) : 이 단계는 문학교육을 문화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보려는 경향으로, 문화 개념에 대하여 문화 연구의 시각에서는 인간과 문화가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교육해야 할 문학작품은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 특히 대중문화와는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또한 학교 교육의 학습 내용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강조하는 관점이다.<sup>73)</sup>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문학학습과는 달리 대중문화에 온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의 학습은 이런 문화현상을 수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교과서의 시를 비록 수학능력평가나 학교의 시험을 위해서 배우지만 정작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유행가의 가사나 소위 ‘키치’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문학이기 때문이다.<sup>74)</sup>

시적 이미지를 확대하는 과정의 내면화 단계의 일환으로서 모듬별로 비슷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대중가요를 찾아보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감상과 느낌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

72)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시·공간적 배경 바꾸기, 화자 바꾸기, 상황 바꾸기, 시의 일부분 고쳐쓰기 등을 할 수 있다. 본 수업의 실제에서는 사투리로 바꿔보기, 어순 바꾸기, 시제 바꾸기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한다.

73) 윤여탁, 앞의 책, pp.30~33.

74) 위의 책.

감정이나 느낌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시적 체험의 심화, 확대를 가능하도록 한다.<sup>75)</sup> 현실적으로 이 단계를 본시 학습 중에 할 수 없으면 과제로 제시하여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수행평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6 : 시의 주제는 시의 전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통일됨으로써 형성되므로 이 과정에서 시인의 생활과정 내지 개성적 특질과 같은 생애사적 자료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생애와 관련된 당대의 문학상황, 나아가 시대적 배경 등 문학사 내지 역사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작품과 시대상황의 대응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보조 자료가 때로는 시의 올바른 해석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나친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와 시인에 관한 문학 세계 내지 시대와 역사적 상황에 관한 소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의 주제 내지 의미를 파악해 내고 작품 전체의 총체적인 구조를 선명히 하는 마무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sup>76)</sup>

---

75) 대중가요 가사가 문학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의 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자료를 찾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76) 김재홍, 「시교육의 방법」, 김은전(외), 앞의 책, pp.75~77.

## Ⅳ. 이미지 중심 현대시 지도 방법의 실제

이 장에서는 ‘Ⅲ. 이미지 중심 현대시 교육방법’에서 제시된 수업 모형을 실제 작품에 적용할 것이다. 단원은 고등학교 1학년 『국어(상)』 단원 6. 노래의 아름다움 (3)진달래꽃이다.

수업은 작품 감상의 기본이 되는 텍스트 맛보기를 시작으로 텍스트 이해, 감상, 감상의 심화, 이미지 통합 및 정리까지 1차시에 진행할 것<sup>77)</sup>이며, 선행학습 및 전체학습, 모둠학습, 개별학습 등의 학습 형태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시간은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따라 50분으로 배정한다.

### 1.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수업 계획<sup>78)</sup>

【표 9】 수업 계획

| 단계 | 절 차        |                   | 주요학습 내용 및 활동                                | 학습<br>형태<br>및<br>참고 |
|----|------------|-------------------|---------------------------------------------|---------------------|
| 도입 | 텍스트<br>맛보기 | 1.학습<br>목표<br>세우기 | ·전시학습확인 : 이미지의 개념, 기능, 유형<br>복습<br>·학습목표 확인 | 학생<br>및<br>교사       |

77) 학생들의 예습을 통한 선행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있으면 1차시에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수업시간의 연장이 필요함.

78) 수업절차는 교육부의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운영자료』를 참고하였음.

|    |                 |                                  |                                                                                                                                                                                                                                                                                                       |                                                 |
|----|-----------------|----------------------------------|-------------------------------------------------------------------------------------------------------------------------------------------------------------------------------------------------------------------------------------------------------------------------------------------------------|-------------------------------------------------|
| 전개 |                 |                                  | ·학습 동기유발                                                                                                                                                                                                                                                                                              | 활동                                              |
|    |                 | 2.안내하기                           | ·진달래꽃 사진이나 그림제시(꽃 자체의 이미지 제시)<br>(1)제목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즉 ‘진달래꽃’ 자체의 이미지와 작품이 갖는 이미지의 차이 암시하기<br>(2)‘진달래꽃’에 숨어있는 전설과 설화를 통해 우리민족의 정서 알아보기                                                                                                                                                                   | 모둠 또는 개별 학습                                     |
|    | 1차 텍스트 접근단계     | 3. 한 눈에 보기/나대로 감상                | *꽃의 심층적 이미지 파악해 보기<br>(1)시와 관련된 음악을 들으며 이미지 떠올리기<br>(2)제목 ‘진달래꽃’의 심층적 이미지 알아보기                                                                                                                                                                                                                        | 개별 또는 모둠 학습, 교사의 협동 학습, 학생의 발표                  |
|    | 2차 텍스트 감상단계     |                                  | * <u>상상력 기르기</u><br>(1)꼼꼼하게 텍스트 읽기(close reading)를 하며 작품 속 지배적 이미지 찾아보기                                                                                                                                                                                                                               |                                                 |
|    | 3차 텍스트 감상의 심화단계 | 4. 활동하기(혼자하기/함께하기를 통한 시적 이미지 확대) | * <u>시적 체험의 확대</u><br>①낭독하기 : 개인, 모둠별 합독<br>*시적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듣고 평가해 보기<br>②시인의 시세계에서 보이는 지배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다른 작품과 견주어보기<br>③부분적, 감각적 이미지를 찾아 해석하기<br>-시각적 이미지 찾기<br>-미각적 이미지 찾기<br>-근육감각적 이미지 찾기<br>-상징적 이미지 찾기<br>④표층적, 심층적 이미지로 생각그물 만들기<br>⑤고쳐쓰기, 바꿔보기를 통해 이미지의 변화 알아보기<br>⑥비슷한 이미지(또는 주제)의 대중가요 가사 찾아보기 |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1차와 2차는 생략하고 3차 단계를 중심으로 수업활동을 할 수 |

|    |                   |               |                                                                                           |                                           |
|----|-------------------|---------------|-------------------------------------------------------------------------------------------|-------------------------------------------|
|    |                   |               |                                                                                           | 있다.                                       |
| 정리 | 이미지<br>통합 및<br>정리 | 5. 정 리 하<br>기 | (1)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활동내용을 표현(발표)해보기<br>(2)작품의 지배적 이미지를 시인이 살았던 시대상황과 연관지어 확대 해석해 보기<br>(3)정리하기 | 개인<br>또는<br>모둠<br>학습,<br>교사의<br>도움말<br>제시 |

## 2.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수업의 실제

여기서는 ‘Ⅲ-2.이미지 중심 현대시 수업의 전략’에서 제시한 수업모형의 활동내용과 교사의 문제제시와 학생의 대답을 통한 이해과정을 중심으로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학생과 교사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점차 이미지가 확대 심화되도록 활동내용을 제시하였다.<sup>79)</sup>

### (1) 단원명 : 고등학교 국어(상)

대단원 6. 노래의 아름다움 (3)진달래꽃(4/8차시)<sup>80)</sup>

79) 이러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라는 장르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학습자의 개별적인 감상능력을 인정하고 소규모의 집단을 구성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물론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 각자의 반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해석의 무정부’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학습자 각자의 반응을 존중하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학습자간의 토의나 토론 학습 등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반화되고, 반드시 정리 과정을 통해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 간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이나 토의 학습 진행으로 수업시간이 다소 산만하거나 소란스럽더라도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제지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교사가 활동을 제시해 주거나 활동 결과를 정리해주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80) 지은이 김소월(金素月, 1902-1934, 본성명 김정식 廷湜) : 1920년대 민요조 서정시인,

## (2) 단원 설정 사유

문학은 일상 언어를 일정한 질서와 조화 속에 융화시킴으로써 아름다움을 실현한다. 특히 시는 언어의 음악성과 형상성, 함축성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아름다움을 실현하는데, 다양한 시작품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목표이다.<sup>81)</sup>

소단원 (3)진달래꽃<sup>82)</sup>은 민요조 서정시로서 떠나가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한의 정서를 여성화자의 입장에서 형상화한 시<sup>83)</sup>이므로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학생 각각의 생각이 정립되어 내면화하고 다른 많은 작품을 읽을 때에도 활용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을 즐겨 찾아 읽는 이유는 그것이 정신적인 교훈과 아울러 아름다움을 통한 쾌감을 주기 때문인데, 이 단원의 학습에서는 시

---

평북 정주 출생, 오산중학 시절 스승인 김억(金億, 김안서)의 추천으로, 『창조(創造)』 5호에 <낭인(浪人)의 봄> 등 5편의 작품을 발표, 1922년부터 김억의 주선으로 『개벽(開闢)』 지를 통해 <금잔디>,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못잊어> 등 발표, 1923년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1924년 김동인 등과 함께 『영대(靈臺)』 동인으로 활동, 민요조의 고운 가락, 그리움의 애달픈 정서 표현, 1934년 12월 사업의 실패와 세상에 대한 실의로 고민하다 자살, 1925년 그의 생전에 『진달래꽃』 출간, 그의 사망 후 1939년 김억의 주관 하에 『소월시초(素月詩抄)』 발간, <http://www.naver.com/> 지식검색.

81)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지도서, p.293.

82) 위의 책에 의하면 문학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요소인 음악성에는 이 단원을, 형상성에는 정지용의 ‘유리창’을, 함축성에는 이육사의 ‘광야’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한편의 시작품을 학습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봄으로써 이해와 감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즉 문학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요소 3가지를 고루 학습할 수 있지만 특히 이미지 형상성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83)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하는 절구는 한국시의 전통적인 역설법의 좋은 예가 된다.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는 역설적 다짐 속에는 이별의 슬픔을 카타르시스하려는 강한 극복 의지가 잠재해 있는 것이다.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는 역설적 아이러니 속에는 비극적 슬픔을 극복하고 차원 높은 사랑의 미학을 성취하려는 집요한 의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김재홍, 『시교육의 방법』, 김은전(외), 앞의 책, p.69.

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혼자하기’ 또는 ‘함께하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인 수용활동과 적극적인 토론, 발표활동을 하도록 한다.

### (3) 본시 수업 계획의 실제

#### ▶ 도 입 ◀

**\*전시학습확인 : 이미지의 개념, 기능, 유형에 대해 복습한다.**

<지각적 이미지를 찾아보자>

- 시각적 이미지를 찾아보자
- 청각적 이미지를 찾아보자.
- 후각적 이미지를 찾아보자.
- 미각적 이미지를 찾아보자.
- 기관, 근육 감각적 이미지를 찾아보자.

<비유적 이미지를 찾아보자>

<상징적 이미지를 찾아보자>

#### 1. 학습목표 세우기

- 표층적, 심층적 이미지를 찾아 발표할 수 있다.
- 감각적, 지배적 이미지를 찾아 발표할 수 있다.
- 시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른 형태의 작품(생각 그물 만들기, 고쳐쓰기 등)으로 바꿔 볼 수 있다.

● ‘진달래꽃’에는 제목을 통해 표층적, 심층적 이미지를 엿볼 수 있고, 작

품 속에서 지각적(감각적)이미지로서 시각, 청각, 근육감각적 이미지를 찾을 수 있으며, 상징적 이미지까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찾아볼 수 있다.

## 2. 안내하기 - ‘진달래 꽃’사진이나 그림 제시(꽃 자체의 이미지 파악하기)

(1) 제목 ‘진달래꽃’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즉, 진달래꽃 그 자체의 이미지와 시작품이 갖는 이미지를 각각 나누어 발표해 봅시다.

### 【학생의견】

김\*\* : 진달래꽃의 꽃말은 신념, 청렴, 절제입니다. 꽃색은 분홍색, 흰색이며,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종류에는 흰진달래, 털진달래, 왕진달래, 반들진달래, 한라진달래, 제주진달래 등으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몽골 북부 등지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참꽃 또는 두견화라고도 하며, 꽃은 이른 봄 화전을 만들어 먹거나 진달래술(두견주)를 담그기도 하며, 약용으로 한방에서는 진해, 혈압강하제, 토혈 등에 사용하기도 하는 봄에 볼 수 있는 꽃입니다.

박\*\* : 진달래는 관상용, 약용으로만이 아니라 식용으로도 우리 선조들과 아주 친근한 꽃으로서, 옛날 가난하던 시절, 길고 긴 보리고개때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간식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주린 배를 안고 산으로 가면 성찬처럼 차려 있던 진달래 꽃더미, 햇바닥이 잉크빛이 되도록 따먹던 일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슬픈 그리움으로 남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오랫동안 친근감을 가졌다고 하니 이 꽃이 단순히 꽃이 아닌 다른 정신이 깃든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 배울 작품에서도 겉으로 나타난 이미지 뿐만 아니라 깊은 이미지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사조언】

：진달래꽃 색깔이 붉은색으로 음양으로 따지면 양의 색이기 때문에 이 꽃을 먹으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으며 잡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 즉 주술적인 발상에서도 신맛이 나는 이 꽃을 먹기도 했다. 또한 진달래는 척박한 토양과 낮은 온도에서 발아와 생육이 잘 되기 때문에 산의 남쪽 보다는 북쪽 경사진 곳을 더 선호하므로 이런 특성 때문에 진달래는 강인한 생명력의 표상으로 여겨지고,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대표성과 우리 선조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다는 역사성 때문에 한때는 이 꽃을 우리나라 국화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2) 진달래꽃에 숨어있는 전설(진달래꽃을 두견화라고 하는 이유)과 설화(진달래무덤, 진달래 약탈)를 발표해 봅시다.

### 【학생의견】

조\*\*：이 꽃에 얹힌 전설을 보면 왜 이 꽃이 우리나라 국화로 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두견새는 일명 접동새를 일컫는 이름인데 봄에 오는 철새로서 이로운 새인데 특징은 숲 속에서 홀로 살며 둥지를 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은 휘파람새 등의 둥지에 한 개씩 낳아 놓음으로써 다른 새가 대신 새끼를 기르게 하여 자신을 조금도 자기의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인지 두견새의 울음은 처절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애달픈 전설로는 옛날 촉나라 임금 망제는 그 이름이 두우였는데 위나라에 망한 후 도망하여 복위를 꿈꾸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녀이 두견새가 되었고 한이 맺힌 두견새는 밤이고 낮이고 “고향 촉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고향 촉나라로 돌아가고 싶다(귀촉, 귀촉)”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귀촉도’라고도 불렀습니다.

### 【교사조언】

진달래꽃잎 색깔이 왜 그렇게 붉은지 알아보자. 죽은 망제의 혼인 두견새는 맺힌 한으로 피를 토하고 울고 토한 피를 다시 삼켜 목을 적셨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한이 맺힌 피가 땅에 떨어져 진달래뿌리에 스며들어 꽃이 붉어졌다고도 하고, 또 꽃잎에 떨어져 붉게 꽃잎에 물이 들었다고도 한다. 두견새는 봄이 되면 밤낮으로 슬피 우는데 특히 핏빛같이 붉은 진달래만 보면 더욱 우지진다고도 하고, 두견새가 한번 우는 소리에 진달래꽃잎이 한송이씩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진달래 무덤’에 관한 설화를 찾아보자. 우리나라의 속된 말 중에 봄바람이 들어 들뜬 아가씨를 두고 ‘참꽃(진달래)에 볼때기 텐 년’이라는 말이 있다. 만산홍(滿山紅)의 진달래로 두 볼에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니 진달래에 관한 이보다 감각적인 표현이 다른 나라에 있을까 싶다. 이렇게 볼을 텐 처녀들은 진달래를 한아름씩 꺾어들고 ‘진달래 무덤’을 찾아가 꽃을 꽃아주는 것이 봄철 아가씨들의 은밀한 의식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진달래 무덤은 그 이름처럼 낭만적이진 못하다. 장가 못 가고 죽은 총각이 외지에

서 머슴살이 하다가 죽거나 객사한 소금장수 같은 연고 없는 무덤이다. 돌보지 않아 황폐해진 그 무덤에 연중 한 번 진달래철에 꽃무덤이 된다 하여 그런 고운 이름을 얻었을 뿐이다. 꽃을 꽃지 않은 처자에게는 장가 못 가고 죽은 이 몽달귀신의 해코지를 받는다는 금기가 있었고 장가 못 가고 죽은 원령에 대한 예쁘디 예쁜 봄의 풍속이었다.

‘진달래 약탈’이라는 신나는 풍속도 있었다. 봄철이면 젊은 나무꾼들은 나뭇짐에 진달래를 촘촘히 꽂아 꽃짐을 지고 내려오다가 마을 여인네들이 모여 있는 동네 샘가 앞을 지나간다. 그 중 왈가닥 아줌마가 진달래 꽃짐 뒤로 슬금슬금 다가가서 이 젊은 나무꾼의 바짓가랑이를 끌어내린다. 못 보일 것이 드러나 허둥지둥하면 샘가의 부녀부대가 폭소를 터뜨리며 습격하여 그 진달래꽃을 약탈해 간다. 이런 약탈을 당해야 장가를 갈 수 있고 또 품삯도 반품에서 온품으로 받을 수 있었으니 바로 성인식(成人式)의 일종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역시 의식화된 진달래 약탈 습속이었다.

즉 ‘진달래 무덤’이나 ‘진달래 약탈’은 심층에 성(性)을 암시하는 감각적인 풍습이란 차원에서 공통되고 있다.

정신적 차원에서도 진달래꽃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옛 우리 선조들은 꽃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이나 현란함을 천하게 보고 그 기절(氣節)이나 지조를 귀하게 보았다. 그래서 마치 벼슬에 품작을 매기듯이 꽃에도 일품(一品)에서 구품(九品)까지 품작을 매겨 가까이하거나 멀리하기도 했다. 세조 때 재상인 강희안의 <양화소록(養花小錄)>에 보면 진달래는 정오품(正五品)에 올라 있으며 그만한 품작을 내린 이유로 진달래는 메마른 땅이나 바위틈을 골라 피고 또 북향일수록 잘 피고 꽃빛갈도 진하다는 것이다. 곧 절신(節臣)이 궁지에서 임 향한 일편단심으로 붉게 간직하는 기절을 이 꽃에서 보아낸 것이다.

이렇게 진달래꽃에 사랑을 심고, 품작을 주고, 정을 태우는 것만으로 성  
에 차지 않아 진달래로 화전(花煎)을 부치고, 진달래로 화면(花麵)을 빚으  
며, 진달래로 화주(花酒)까지 담아서 먹었을 것이다.<sup>84)</sup>

## ▶ 전 개 ◀

### 3. 한눈에 보기/나대로 감상 - 1차 텍스트 접근 단계(꽃의 심층적 이미 지 파악하기)

(1) 시를 천천히 읽고, 노래를 들으며 느낌과 이미지들을 머리 속에 떠  
올려봅시다.

그리고 노래를 아는 학생은 직접 불러봅시다.

(노래 : 마야, ‘진달래꽃’ <http://home.bugsmusic.co.kr/home.htm>)

진달래꽃

나 보기가 역겨워

---

84) 진달래꽃을 소재로 만든 음식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삼월 삼진날(음력 3월 3일) 지천으로 핀 진달래꽃이 음식재료로 한 몫을 한다. 먼저 ①진달래 화전을 부쳐 조상의 사당에 올리고, 당시 가의 외출을 하지 못했던 여인들은 가까운 야산에 소풍을 가는데 이것을 화전놀이라고 하였다. 화전을 찹쌀 반죽에 꽃을 섞거나 장식으로 꽃을 붙여 기름에 지져 먹는 것으로서 계절마다 좋은 꽃을 넣었다. 봄에는 분홍색 진달래, 여름에는 붉은 장미나 맨드라미, 가을에는 노란 국화, 겨울에는 꽃이 없으므로 마른 대추와 까만 석이버섯을 올려 떡 위에 꽃처럼 붙이기도 하여 꽃의 향과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화전은 우리 조상들의 멋을 느낄 수 있다. ②붉은 오미자물에 꿀을 타서 진달래꽃을 동동 띄운 오미자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였고, ③진달래를 술에 담가서 두견주를 마시기도 하였으며, ④진달래꽃을 섞어서 만든 진달래국수를 아이들의 돌상이나 환갑잔치 상에 올려서 길고 오래 장수하기를 기원하였다. 그리고 진달래를 딸 때 주의점으로는 진짜 진달래를 따야한다. 왜냐하면 진달래꽃과 비슷한 철쭉을 따서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다고 한다. 『밥 힘으로 살아온 우리민족』 중에서 발췌함.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눈물 흘리오리다.

### 【학생의견】

강\*\* : 노래를 들으면 마냥 신나고 경쾌한 리듬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설속에 축나라 망제의 혼이 깃들어 두견새가 붉은 피를 토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과 설움으로 마음이 심란하고, 또한 조상들이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 성적인 욕망을 자연스럽게 표출한 상징적 이미지도 있다는 점에서는 자칫 어둡고 불쾌할 수도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어 이 노래의 경쾌한 리듬을 통한 이미지와 약간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조언】

성적인 상징으로 우리나라 조상들이 혼인 첫날 밤 창호지의 구멍을 통해 동네사람들이 모두 엿보기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던 은밀함과 연관되지 않을까. 흥겨운 리듬 속에 교묘하게 그러한 욕망을 숨겨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조금 서글픈 느낌과 이미지의 노래로 가곡도

있다.

## (2) 제목 ‘진달래꽃’의 심층적 이미지를 알아봅시다.

### 【학생의견】

최\*\* : 이 꽃이 단순히 개나리와 더불어 봄에 피는 꽃이라면 시인이 다른 꽃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달래색깔을 분홍색이라고 하기에는 좀 진하고 보라색이라고 하기에는 좀 연한데, 색깔이 주는 이미지는 수줍은 새색시의 얼굴을 떠올리게도 하고, 새롭고 환하게 피어나는 봄 처녀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 【교사조언】

해마다 봄이 되면 산 전체를 불타오르게 하고, 그러면서도 바위틈 사이에서 하나하나 외롭게 피어나는 진달래꽃, 이런 점에서 진달래꽃은 결코 점잖은 꽃, 자기억제의 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울타리 안에서 길들여진 관상용 꽃이 아니다. 오히려 겨우내내 야산의 어느 바위틈이나 벼랑가에 숨어 있다가 봄바람과 함께 분출한 춘정(春情)을 주체할 줄 모르는 야속한 꽃이다. 더구나 이 시에 나오는 영변 약산에 피는 진달래꽃은 그 색깔이 질기로 유명하였다. 온 산 전체를 온통 불태우는 꽃으로 조선시대의 화가 신윤복의 그림에서 보이는 남자들과 나귀타고 산행을 하는 기생들의 머리에 꽃았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꽃이다. 그러니 이 시에서의 진달래꽃은 결코 간단히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 4. 활동하기 : <혼자하기>와 <함께하기>의 적절한 병행을 통해 시적 이미지 확대

## (1) 2차 텍스트 감상단계(상상력 기르기)

: 꼼꼼하게 텍스트 읽기(close reading)를 하고 작품 속의 지배적 이미지를 알아 봅시다.<sup>85)</sup>

### 【학생의견】

김\*\* : 떠나는 님을 위해 꽃을 뿌리는 행위가 비현실적이지만 아름다운 이유는 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시적 화자의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서 일 것입니다. 꽃을 뿌리는 행위의 표면적 의미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산화공덕(散華功德)’으로, 님의 앞날을 영화롭게 한다는 축복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한 만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사조언】

작품 속의 ‘진달래꽃’의 이미지는 단순히 ‘영변의 약산’에 피어있는 어느 꽃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을 표상하기 위해 선택된 시적 자아의 분신을 나타낸다. 이별의 정한(情恨)을 극복하기 위한 한 여인의 사랑, 헌신, 체념과 극기를 볼 수 있는데, 이 정한의 세계는 「공무도하가」<sup>86)</sup>, 「가시리」<sup>87)</sup>, 「서경별곡」<sup>88)</sup>, 「아리랑」<sup>89)</sup>으로 계승되어 흘러 내려오는 우리 민

85) 중요한 시어와 시구, 시상의 흐름을 간단히 파악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역겨워 : 구역질나다, 마음에 거슬리다, 애정이 식다 \*영변에 약산 : 실제 지명 \*즈러 : 살짝, 1연 : 이별의 정한, 2연 : 떠나는 임에 대한 축복, 3연 : 원망을 초극한 헌신적 사랑, 4연 : 슬픔의 극복).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지도서, p.293.

86) 公無渡河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公竟渡河 임은 그에 건너시고 말았네/墮河而死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當奈公何 가신 임을 어이할꼬, <http://www.naver.com/지식검색>.

족의 전통적인 정서와 그 맥을 같이 한다.

## (2) 3차 텍스트 감상의 심화단계(시적 체험의 확대)

①개인 또는 모듬 대표의 낭독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해 봅시다.

### 【학생의견】

강\*\* : ○○○의 낭독은 발음이 분명하고 띄어 읽기 등이 정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 분위기는 우중충하고 흐린 가을날의 회색 같은데 낭독자의 목소리는 기쁘고 들뜬 봄날의 노란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것 같이 지나치게 낭랑하고 맑아서 시의 분위기나 감정 표현이 다소 부족한 느낌입니다. 이 시의 분위기인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느껴지도록 애절한 감정 표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최\*\* : ○○○의 낭독은 정확히 글자를 맞추어 잘 읽었습니다만, 시의 분위기인 이별의 슬픔을 생각하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그저 글자를 읽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시의 주인공처럼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

---

87)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sup>ㄴ</sup>,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sup>ㄴ</sup>, 위 증줄가 대평성대(大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sup>ㄴ</sup>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sup>ㄴ</sup>, 위 증줄가 대평성대. 잡스와 두어리마<sup>ㄴ</sup>노, 선히면 아니 올세라 나<sup>ㄴ</sup>, 위증줄가 대평성대. 설은 님 보너<sup>ㄴ</sup>올노니 나<sup>ㄴ</sup>, 가시<sup>ㄴ</sup>노토셔오쇼셔 나<sup>ㄴ</sup>, 위 증줄가 대평성대.” <http://www.naver.com/백과사전>.

88) 西京이/ 아즐가/西京이 서올히 마르느/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 데 아즐가/닷곤 데 쇼성경 /고외마르느/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해므론 아즐가 /여해므론 질삼뵈 바리시고/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괴시란대 아즐가/괴시란대 우러곰 좇니 노이다/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이하생략) <http://www.naver.com/지식검색>.

89)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난다, <http://www.naver.com/백과사전>.

림받고 있는 슬픈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적합한 감정으로 낭독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 【교사조언】

작품에 마음을 열고 작중 상황을 파악하여 시의 전체적 흐름을 더듬어 나아가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시를 되풀이하여 읽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아무리 좋은 시라도 되풀이하여 읽지 않으면 그 시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다. 그러므로 시의 행 구별을 최대한 살리고, 의미 덩어리로 두 개씩 짝짓기 하여 끊어, 큰 호흡의 한 의미 덩어리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핵심어에 강세를 주면서 시의 분위기에 알맞은 음악을 배경으로 삼아 낭송하면 시적 이미지를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진달래꽃은 맑고 깨끗한 붉은 빛으로 강렬하고 처절한 시각적 이미지이나, 그 빛깔로 인해 더욱 애처로운 느낌을 들게 하여 우리 민족에게는 전통적으로 한(恨)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진달래꽃의 상징적 의미는 '숭고한 희생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임을 원망하지 않고 진달래꽃을 정성스럽게 따서 임 앞에 뿌리는 숭고한 희생적 행위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 시를 읽을 때는 차분하면서 슬픔을 안으로 삭이는 어조와 감정으로 찬찬히 낭송하면 좋을 것이다.

**[2]시인의 시세계에서 느껴지는 지배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그의 대표작 「산유화」<sup>90)</sup>와 견주어 해석해 봅시다.**

---

90) 산에는 꽃 피네./꽃이 피네./갈 봄 여름 없이/꽃이 피네.//산에/산에/피는 꽃은/저만치 흔

## 【학생의견】

황\*\* : 시인의 생애를 살펴보면 평화롭고 순탄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고 다시 이 시를 읽어보니 남녀의 단순한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 시라는 이미지는 잘못 해석되었거나 아주 표면적인 이해에 불과함을 느꼈습니다. 심층적인 의미로 존재의 생성과 소멸, 태어남과 죽음까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교사조언】

시인 김소월의 시는 언제나 애상(哀傷)에 젖어 있다. 흙이 묻은 언어로, 풀기가 남은 무명옷의 그윽한 향기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그는 노래한다. 그는 이 땅의 민족적 정서를 대변하면서 아름다운 우리말과 민요적인 울조로 많은 시를 남긴 채 32세로 요절한 시인이다.<sup>91)</sup> 그러므로 이

---

자서 피어 있네.//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꽃이 좋아/산에서/사노라네.//산에는 꽃 지네/꽃이 지네/갈 봄 여름 없이/꽃이 지네. 김한호, 『슬픈 시인의 노래』, 문예마당.

91) 1990년 9월 3일 한국일보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애수에 젖어 끝내 요절한 시인, 소월」 배재고보 시절 대표작 <금잔디>,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등을 발표, 문단의 각광을 받았고, 이어 「영대」(靈臺) 동인으로 활동하며 <산유화>, <꽃초롱불 켜는 밤> 등을 발표했다.

1926년부터는 작품 발표를 중단, 처가가 있는 구성면에서 「동아 일보」 지국을 경영하는 등 사업에 손을 댔으나 실패, 인생에 대한 회의와 실의로 술을 찾는 빈도가 잦아졌으며, <돈과 밥과 자유> 등 몇 편의 시에는 금전 문제 등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생경(生硬)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마약 과용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유일한 시론(詩論)이라 할 수 있는 <시혼>(詩魂)을 「개벽」지에 발표, 음영(陰影)을 중시하고 시혼(詩魂) 자체가 변화해서 여러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 시혼(詩魂)이 시대나 사회 정세 하에서 어떤 음영(陰影)을 던지는 것이 시라고 주장했다.

그의 시는 대단한 대중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월의 노랫말을 쓴 동요, 가곡 및 가요는 <엄마야 누나야>, <초혼>, <못잊어> 등 40곡 이상 된다.

그의 시비(詩碑)는 두 군데 있다. 하나는 1968년 3월 한국 신시(新詩) 60년을

시는 그저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별이라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존재론의 문제로도 확대해 볼 수 있겠다. 즉 시인은 「산유화」에서처럼 이 시에서도 ‘진달래꽃’의 개화와 낙화를 사랑의 피어남과 떨어짐, 즉 만남과 이별이라는 원리로 설정함으로써 마침내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그는 더 나아가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생성과 소멸의 인생의 의미를 깊이 인식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③ 이 시에 나타난 감각적, 부분적인 이미지를 찾고, 이미지를 확대 해석해 봅시다.**

### **【학생의견】**

\*\*\*모듬 : 색깔로 알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달래꽃’이라는 소재 자체에서 굉장히 강렬한 붉은색, 붉은 피, 붉은 융단같은 시각적 이미지, ‘즈려 밟고’에서 꽃잎이 처참하게 밟히는 시각적 이미지와 발로 직접 밟는 행동의 근육 감각적 이미지, ‘역겨워’에서 느껴지는 속이 거북하고 구토할 것 같은 미각적, 근육 감각적 이미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에서 오히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상인 시각적 이미지 등이 느껴집니다.

\*\*\*모듬 : 진달래꽃 색이 분홍색인지 붉은색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색깔은 앞에서 배웠듯이 잡귀를 없앤다는 주술적 이

---

기념, 「한국 일보사」가 서예가 김충현(金忠顯)의 글로 <산유화>를 새겨 남산중턱에 세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재 38회 졸업생인 그를 기려 후학인 배재교 동창들이 1975년 6월 교내에 세운 <진달래꽃> 시비(詩碑)다. 「문학사상」에서는 1986년부터 ‘소월 문학상’을 제정, 매년 시상하고 있다.

미지가 있고, 새색시 불의 홍조와 성적욕망을 상징하는 성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피는 꽃이라는 처음, 시작, 출발의 신선함, 산뜻함의 이미지, 배고픈 시절 허기를 채워주었다는 미각적 이미지와 오랜 시간 우리 조상들과 같이 이어져온 친근한 이미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 【교사조언】

버림받은 여인과 떠나는 남자 사이에 발생하는 비극적 상황이 초점을 이루는 설화적 모티브를 원형(原型)으로 하여 여성 편향(female complex)의 이미지가 있다. 즉, 시의 종지부에 있는 ‘드리오리다’, ‘뿌리오리다’, ‘가시웁소서’ 등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애절하고 간절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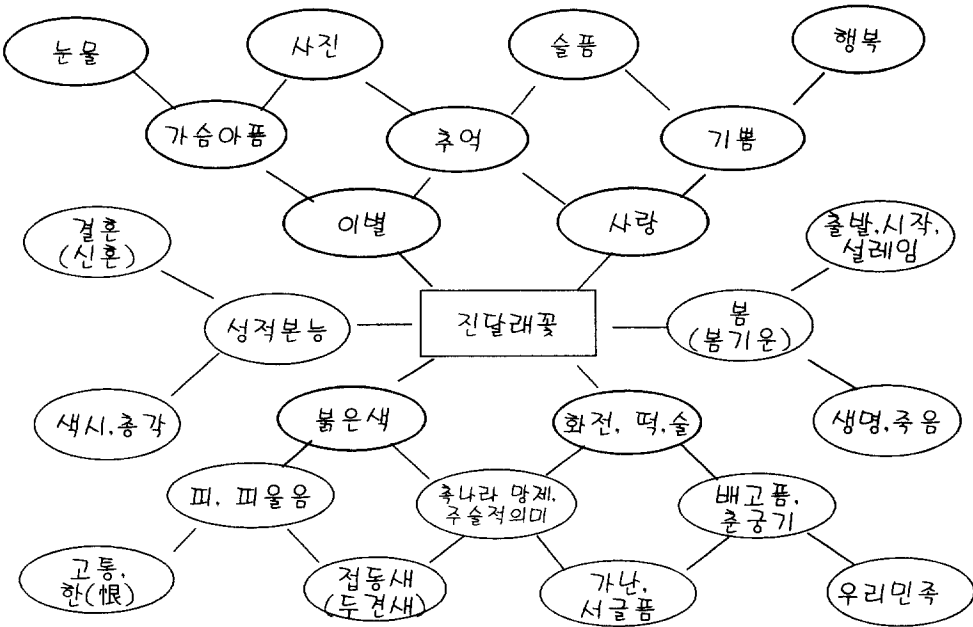
마지막 시행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와 ‘즈러밟고’에서는 신체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근육감각적 이미지도 엿볼 수 있다. 시적 화자가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는 피학적(masochistic) 정신상태와 가시는 걸음걸음 즈러밟고 가라는 부분에서는 떠나는 님이 결국 가학자(sadist)임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시적 화자인 여성은 고도의 치밀한 시적 장치를 통해 떠나는 님을 붙잡아두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의 소유자라고도 할 수 있다.

**④ 제목의 표층적, 심층적인 이미지를 대상으로 생각그물(마인드맵) 만들기를 해 봅시다.**

### 【학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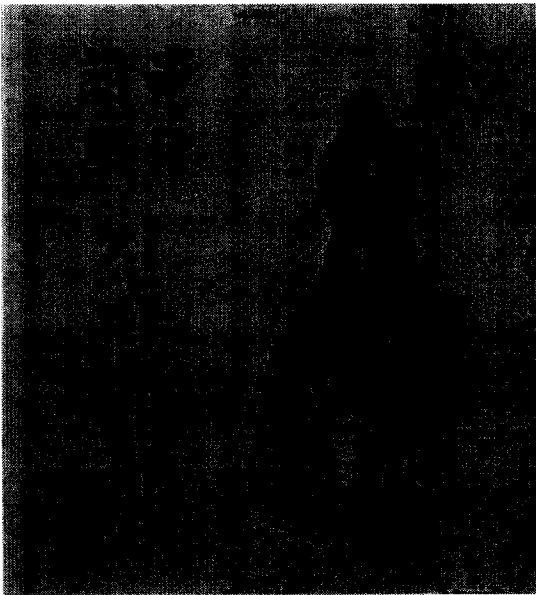
\*\*\*모듬 :

【그림 1】 생각그물 만들기



【교사조언】

【그림 2】 시집 ‘진달래꽃’의 표지



이것은 바로 김소월의 진달래꽃 시집 표지이다. 그림이 흑백으로 되어있어서 조용하고 서정적이면서도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시의 중심 이미지인 ‘진달래꽃’ 붉은색을 통해 붉은 피→고통, 한(恨), 배신, 죽음→애이불비→강렬하고 아름다운 사랑, 희생, 초월, 극복, 의지, 성숙, 강한 생명력 등으로 확대해 볼 수 있다.

⑤ ‘진달래꽃’을 고쳐 쓰기(패러디)하여 봅시다. (사투리로 바꿔보기, 어순 바꿔보기, 시제 바꿔보기를 통해 이미지의 변화를 해석해 보기)

**【학생의견】**

\*\*\*모듬 : 경상도, 부산 사투리로 바꿔보기

내 꼬라지 배기 실타꼬 갈라카몬  
내 더러버서 암 말 안하고 보내 주꾸마

영변 약산 참꽃  
항거씩 따다가 니 가는 길에 뿌리주꾸마

니 갈라카는 데마다 나아둔 그 꼬슬  
사부지기 빼대에발꼬 가빠라

내 꼬라지 배기시러 간다카모  
내 때리직이뻔다케도 안 울끼이까네  
괴안타 고마 가라

참말로 괴안타 안카나  
참말로 괴안테이 참말로.

\*\*\*모듬 : 어순 바꾸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를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우리다’로 바꿔 보면 뜻은 조금도 변함이 없지만 부정을 뜻하는 ‘아니’가 ‘눈물’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 시적 이미지나 의미가 달라집니다. 뒤에 올때는 단순히 평서문으로서 그냥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말인데 앞에 올때는 그 부정의 의미가 훨씬 강력해지는 느낌입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다짐은 더욱 강해지므로 강력한 부정일수록 긍정적으로 들리는 시의 역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교사조언】：시제 바꾸기

이 작품의 시제는 ‘보내 드리우리다’, ‘뿌리우리다’, ‘아니 흘리우리다’처럼 의지나 바램을 나타내는 미래형이다. 미래 추정형으로 ‘만약’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시가 전개되고 있는데 실제 일어났던 과거형으로 바꿔보기를 하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신 그대를 말없이 고이 보내 드렸었지요’로 이 작품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을 과거형 부정문으로 바꿔보기를 한다면 ‘보내드릴 것을’, ‘뿌릴 것을’ ‘흘리지 말것을’ 등으로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실제적 의미로 보면 지금 현재는 님이 자기를 역겨워하지도 않고 떠난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지금 이별은커녕 열렬히 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이 작품이 다른 시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로 시제를 들 수가 있다. 즉 의지나 바램을 나타내는 미래 추정형의 시제로 인해 시적인 상상력이 발동하여 슬픈 발걸음 하나하나에 밝히우면서 동시에 희열로 피어나는 가상공간의 진달래꽃과 이별의 슬픔을 통해 사랑의 기쁨을 가시화

하는 역설 또는 아이러니라는 시적 장치를 알 수 있다. 즉 이별을 이별로써 노래하거나 사랑을 사랑으로 노래하는 평면적 의미와는 달리 시인은 사랑의 시점에서 이별을 노래하는 겹시각을 통해 언어의 복합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반기고 맞이하는 꽃이 이 시에서는 반대로 이별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 향기를 맞고 머리에 꽂는 꽃의 이미지가 돌이나 흙과 같이 바닥에 깔리거나 발에 밟히는 이미지로 바뀐다. 이러한 꽃의 두가지 이미지 때문에 가벼움을 나타내는 ‘사뿐히’와 무거움을 나타내는 ‘밟다’라는 서로 모순되는 어휘가 하나로 결합하여 ‘사뿐히 즈려밟고’의 복합어가 되기도 한다.

#### **[6] 시적 이미지가 비슷한 대중가요 가사를 찾아 봅시다.**

##### **【학생의견】**

\*\*\* 모두 : ‘빅마마의 <체념>’이 ‘진달래꽃’의 이별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가사는 “행복해서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너무 힘들었겠지/ 너의 마음을 물랐던건 아니야/ 나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 게 널 떠나 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니가 원망스러워// \*왜 말 안했니 아님 못한거니 조금 보낼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거면서/ 왜 그런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거니/ 시간을 돌릴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뿐이야// 그래 더이상 묻지 않을게 내결을 떠나고 싶다면/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괜히 마음만 약해지니깐/ 내게

서 떨어진 니 모습이 흐릿하게 보여 눈물이 나나봐/ 널 많이 그리워할것 같아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수 있도록/ 다시 사랑같은거 하지 않을래/ 마지막 사랑은 돌아선 너에게 주고 싶어서/ 행복하길 바래 나보다 좋은여자 만나기를”입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떠나간 님을 그리워하는 가사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께, 마음만 약해지잖아,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라는 가사는 떠나가는 님을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는 부분으로 ‘진달래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행복하길 바래 나보다 더 좋은 사람만 나기를’이라는 가사는 김소월 시의 꽃을 뿌리는 산화공덕의 이미지와 축복을 비는 부분과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 【교사의견】

시는 본래 곡(曲)에 붙여 부르던 시가(詩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노래와 시는 현재 서로 별개로 논의 되지만 둘 사이에는 아직도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좋아하는 대중가요 중에서 지배적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가사를 찾아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 정 리 ◀

### 5. 정리하기

(1) 시작품의 지배적 이미지를 시인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연관시켜 확대 해석해 봅시다.

## 【학생의견】

정\*\* : 시인 김소월은 우리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힘든 시대를 살았던 시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과 시는 나라 잃은 식민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sup>92)</sup> 진달래꽃의 붉은 색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인 불타오르는 사랑이 빼앗긴 조국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교사조언】

이 작품의 지배적 이미지는 ‘산화공덕’ 즉 가시는 님을 위해 꽃을 뿌리며 축복하겠다는 여전히 불타오르는 사랑, 붉은 꽃의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꽃은 생명의 탄생을 축복할 때도 쓰지만 장례식에도 사용되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 작품 속 ‘가다’란 동사의 내포적 의미를 죽음으로 파악해 보면 시인의 시적 정서인 사랑과 죽음 두 가지와 맞닿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연인의 죽음으로 인해 야기된 절대적 이별 앞에서 말없이 고이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죽음이라는 이별의 본래 모습이 표면적으로 쉽게 노출되었더라면 이 작품은 결코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의미의 울림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시인의 다른 시 「초혼」<sup>93)</sup>에도 알 수 있는 ‘죽은 연

---

92) 그의 초기시는 일본 침략자에게 나라를 빼앗긴 겨레의 불행한 삶을 노래하였다. 아버지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정의 불행,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주위사람들의 불행한 삶 등 주로 슬픔이 나타나 있다. 그가 이 작품을 발표한 시기는 작품 활동의 전성기로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 식민지 현실을 인식하고 겨레일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일본 침략자에 대한 미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빼앗긴 땅에 대한 애착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김한호, 『슬픈 시인의 노래』, 문예마당, 2000, pp.13~14.

93)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 불려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인’을 시인이 속해있는 시대사적 맥락에서 볼 때 잃어버린 조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인의 조국에 대한 태도는 시적 화자의 연인에 대한 태도와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연인이 죽은 연인을 잊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기억하려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다. 하지만 잃어버린 조국을 죽은 연인처럼 생각하고 영영 되찾을 수 없는 존재로 가정한다면 그의 시대 의식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상상력을 좀 더 확대해보자. 연인의 시신을 실은 상여행렬이 지나가고 상여꾼들의 슬픈 만가가 울려 퍼질 때 그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자기들의 운명의 그림자를 엿보고는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도 울어버리면 스스로가 연인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 시의 심층 구조에는 장례의식의 한 절차인 발인과정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4)

시인이 살았던 시대상황과 연관지어 시적 이미지를 확대 해석해 볼 수 있는 시인으로서는 이상화, 한용운, 변영로, 김춘수 등 많은 시인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알아보자.

## (2)정리하기 : ‘진달래꽃’ 작품의 이미지 총정리

---

절리었다. /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 떨어져 나가 앉은 산위에서 /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 부르는 소리는 비껴 가지만 /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위의 책, p.210.

94) 시인의 작품에 이러한 민간의식을 빌려온 작품이 「진달래꽃」, 「초혼」, 「비난수하는 맘」 등이 있다.

## 【학생의견】

시의 제재인 진달래꽃이 중심이 되는 이미지입니다. 붉은 색감이 느껴지는 시각적 이미지에 성적, 주술적, 신화와 전설의 의미가 들어 있고, 약산 동네에 피는 진달래꽃에서 향토적 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시적 공간을 ‘영변→약산→진달래꽃’으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상징적 효과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에서는 ‘임이 가시는 길에 내 사랑의 표현으로 꽃을 한 아름 뿌려 가시는 길을 축복 하겠습니다’라는 불교의 산화공덕(散花功德)의 이미지를 볼 수 있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에서는 가시는 님이 나의 슬픈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실까 걱정스러워 죽는 한이 있어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 에이불비(哀而不悲)의 정신 즉, 한국 여인의 인고(忍苦)와 함께 애절한 정한(情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름 따다’와 ‘즈려 밟고’에서 근육 감각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4연)’에서 보면 이시의 표면적인 의미는 ‘떠나보냄’인데, 속뜻은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강한 의지’로서 이런 서정적 자아의 태도는 ‘가시리’에서 임의 돌아움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끝맺음과는 표면적으로 아주 대조적이지만 내면에서는 동일하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는 ‘속으로 몹시 울겠다’는 뜻의 반어(反語)적 표현입니다.

## 【교사의견】

시의 지배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이라는 극한적 상

황을 ‘진달래꽃’을 통하여 초극하려는 역설적 의지가 담겨진 작품이다. 내용상으로 보아 ‘진달래꽃’은 붉고 아름다운 서정적 자아의 사랑의 완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서정적 자아가 지니고 있는 원망과 슬픔을 상징하는 동시에 떠나는 임에게 끝까지 자신을 헌신하려는 순종과 정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옛 시에서도 ‘진달래꽃’은 민족 정서의 대유적(代喻的) 상징물로써 존재하는데, 특히 사랑과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는 작품에서 시인의 분신으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또, 이 시의 서정적 자아는 김소월 시들이 거의 그렇지만 여성인데 김소월 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시가들은 여성을 서정적 자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여성편향은 존재의 나약성, 잠재된 저항력의 지속적 표출, 또 한편으로는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순화적인 감정 승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꽃의 붉은색에는 상징적 이미지가 들어있다. 김소월은 작품속에서 붉은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이고 불안한 현실적 세계관, 붉은 피는 인간의 맹목적이고 원초적인 생명력への 염원, 새로운 생명탄생에 의한 희망 등을 상징하고 있다.

아울러 ‘진달래꽃’은 설화적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의 인종과 남성의 유랑성을 비극적 상황으로 설정해 놓고 이런 비극적 장면 속에서 여성적 목소리는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의지와 자세로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폭력과 인종의 굴레를 달관하는 이상적 의지를 실현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미지 중심의 시교육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보았다. 또 다른 활동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시의 표층적 이미지 또는 심층적 이미지를 토대로 하여 산문으로 바꾸어 보거나, 이미지를 담

은 일기 또는 편지글을 적어보거나, 한편의 그림으로 그리기, 만화로 표현해보기, 다른 작가의 같은 제목의 시적 이미지 비교해보기 등의 활동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한편의 시를 이해하고 시적 상상력을 기르는 것 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감상과 느낌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기술하는 일종의 글쓰기, 창작활동을 통해 시적 체험의 확대, 심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3.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교육의 효과

본 논문은 학생들의 시에 대한 이해와 감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미지 중심의 시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연구 과제로 선정하였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밝힌 문학교육의 목적은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초점을 맞추며 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하여 미적 감수성을 길러 인간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특히 시(詩)는 배우는 학생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주체자가 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문학적 체험을 획득할 수 있는 장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시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인 감상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목적을 두고, 시의 주제와 관련된 전체 이미지를 활용한 시 감상 교육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미지 중심의 시 수업 모형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를 몇가지 설문을 작성하여 타당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앞의 II

장 2절 현대시의 이미지 교육의 현황에서 언급한 대로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일한 문항으로 두 번을 진행하였다.

다음 내용은 이미지 중심 시 교육 모형을 적용한 후의 학생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조사항목과 문항에 대한 응답률>

【표 10】 설문1-1>

| 내용                              | 보기                       | 응답수<br>(응답률) | 변화도(±%) | 비고                                   |
|---------------------------------|--------------------------|--------------|---------|--------------------------------------|
| 이제까지 시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 ①주제 파악하기                 | 129명(35.8%)  | +19.5%  | 시적 표현장치의 비율이 줄어든 대신 주제 파악하기의 비율이 증가함 |
|                                 | ②시어 이해하기                 | 111명(30.8%)  | -0.6%   |                                      |
|                                 | ③내용 감상하기                 | 52명(14.4%)   | 0%      |                                      |
|                                 | ④리듬(운율), 비유, 이미지 및 상징 파악 | 68명(18.9%)   | -18.9%  |                                      |

【표 11】 설문2-1>

| 내용                                   | 보기     | 응답수<br>(응답률) | 변화도(±%) | 비고                       |
|--------------------------------------|--------|--------------|---------|--------------------------|
| 시교육에서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매우 크다 | 101명(28.1%)  | +13.7%  | 이미지의 중요성이 크다는 응답이 매우 증가함 |
|                                      | ②크다    | 203명(56.4%)  | +17.0%  |                          |
|                                      | ③적다    | 41명(11.4%)   | -23.6%  |                          |
|                                      | ④매우 적다 | 15명(4.1%)    | -2.1%   |                          |

【표 12】 설문3-1>

| 내용                   | 보기         | 응답수<br>(응답률) | 변화도(±%) | 비고            |
|----------------------|------------|--------------|---------|---------------|
| 시의 ‘이미지’는 시의 이해나 감상에 | ①도움이 많이 된다 | 102명(28.3%)  | +6.1%   | 이미지가 시의 이해나 감 |
|                      | ②조금 그렇다    | 223명(61.9%)  | +32.2%  |               |

|                    |                |           |        |                                    |
|--------------------|----------------|-----------|--------|------------------------------------|
| 도움이 된다고 생각<br>합니까? | ③보통이다          | 29명(8.0%) | -25.1% | 상에 도움이<br>된다는 응답<br>이 아주 많이<br>증가함 |
|                    | ④별로 도움이<br>안된다 | 6명(1.7%)  | -13.3% |                                    |

【표 13】 설문4-1>

| 내용                                 | 보기             | 응답수<br>(응답률) | 변화도(±%) | 비고                                      |
|------------------------------------|----------------|--------------|---------|-----------------------------------------|
| 시의 '이미지'의 기<br>능은 무엇이라고 생<br>각합니까? | ①의미전달          | 43명(11.9%)   | + 6.9%  | 상상력 자극외<br>의 다른 기능<br>에도 응답률이<br>다소 높아짐 |
|                                    | ②정서의 환기        | 81명(22.5%)   | + 0.3%  |                                         |
|                                    | ③시의 배경마련       | 79명(21.9%)   | + 9.1%  |                                         |
|                                    | ④독자의 상상력<br>자극 | 157명(43.6%)  | -16.4%  |                                         |

【표 14】 설문5-1>

| 내용                                               | 보기             | 응답수<br>(응답률) | 변화도(±%) | 비고                                     |
|--------------------------------------------------|----------------|--------------|---------|----------------------------------------|
| 학교에서 시를 배울<br>때 스스로 이미지를<br>찾아내는 활동을 해<br>보았습니까? | ①많이 해보았다       | 54명(15.0%)   | + 9.7%  | 스스로 학습을<br>해보았다는 응<br>답이 아주 많<br>이 증가함 |
|                                                  | ②조금 해보았다       | 212명(58.9%)  | + 45.0% |                                        |
|                                                  | ③거의 해보지<br>않았다 | 79명(21.9%)   | -36.4%  |                                        |
|                                                  | ④해본적이 없다       | 15명(4.2%)    | -18.3%  |                                        |

【표 15】 설문 6-1>

| 내용                                                   | 보기                              | 응답수<br>(응답률) | 변화도(±%) | 비고                                                                  |
|------------------------------------------------------|---------------------------------|--------------|---------|---------------------------------------------------------------------|
| 보기의 활동 중에서<br>시의 이미지를 찾는<br>데 가장 효과적이라<br>고 생각되는 것은? | 시 낭송하기(읽<br>기)                  | 139명(38.6%)  | + 0.8%  | 시 낭송하기에<br>여전히 응답률<br>이 높고 고쳐<br>쓰기, 장르바<br>꾸기 등에도<br>응답이 다소<br>높아짐 |
|                                                      | 작가를 알아보기                        | 11명(3.0%)    | -9.8%   |                                                                     |
|                                                      | 고쳐쓰기(패러디<br>하기)                 | 98명(27.2%)   | + 9.1%  |                                                                     |
|                                                      | 장르바꾸기(산문,<br>일기쓰기, 그림<br>그리기 등) | 67명(18.6%)   | + 3.9%  |                                                                     |

|  |                 |            |       |  |
|--|-----------------|------------|-------|--|
|  | 시어 이해(분석)<br>하기 | 45명(12.5%) | -4.2% |  |
|--|-----------------|------------|-------|--|

【표 16】 설문7-1>

| 내용                                                  | 보기      | 응답수<br>(응답률) | 변화도(±%) | 비고                           |
|-----------------------------------------------------|---------|--------------|---------|------------------------------|
| 현재 본인의 시 수<br>업에 대한 관심도와<br>흥미도는 어느 정도<br>라고 생각합니까? | ①매우 높다  | 91명(25.2%)   | + 20.2% | 시의 관심도와<br>흥미도가 매우<br>많이 증가함 |
|                                                     | ②조금 높다  | 185명(51.4%)  | + 37.2% |                              |
|                                                     | ③그저 그렇다 | 70명(19.4%)   | -49.8%  |                              |
|                                                     | ④관심이 없다 | 14명(3.8%)    | -7.9%   |                              |

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시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이 ‘시적 표현인 운율, 비유, 이미지 및 상징 파악’의 비율(18.9% 감소)이 줄어든 대신 ‘시어 이해하기’(30.8%)는 여전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며, 주제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고 응답(35.8%)하였다. 그리고 시교육에서 이미지의 중요성(30.7% 증가)과 이미지의 파악이 시의 이해나 감상에 도움이 되었다(38.3% 증가)고 응답한 학생수가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지의 기능으로는 여전히 독자의 상상력을 연결시키는 응답(43.6%)이 높았으며 다른 기능에도 응답률이 고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모형의 적용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이미지 활용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본 결과,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 보았음(73.9% 응답, 54.7% 증가)을 알 수 있었고, 이미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낭송하기가 가장 적합하다(38.6%)는 의견이었다. 특히 문학작품에서 시는 낭송을 통해 이미지나 운율을 느끼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설문에서 이미지를 활용한 시 수업으로 인해 시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도가 굉장히 향상되었음(76.6% 응답, 50.2% 증가)을 알 수 있었다.

시적 표현 장치는 물론 이미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언어를 통하여 형상화 할 때 그것이 바로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는 임의적인 해석이 무한히 열려있기에 시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는 상상력을 활용해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감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미지를 활용한 시 감상 교육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시 감상 교육은 교사가 말로써 하는 설명보다 학생 스스로의 사고 작용과 상상을 통해 더욱 잘 교육될 수 있다고 본다.

## V. 결론

시의 이미지는 정의 속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무엇보다도 시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장치이다. 시인은 전달하고 싶은 관념이나 실제 경험 또는 상상적 체험들을 미학적으로 그리고 호소력 있는 형태로 형상화시킬 수단을 찾는데, 이 수단이 바로 이미지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과 독자로 하여금 정서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작품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교육적 활동을 시도해 보면 분명 학생들의 시적 이해력과 감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수업 모형을 고안하여 적용해보았다.

먼저 서론에서는 그동안의 시교육과 시 교육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미지 중심의 시교육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시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이미지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II장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토대로 시의 이해와 감상에 반드시 필요한 이미지의 중요성과 시교육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학생들이 이미지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부산광역시 모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미지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시 교육에 있어서 감상력 신장을 위한 이미지 중심 시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살펴본 시교육과 이미지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교육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시수업 모형과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방안을 알아보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시교육 내용과 교수·학습의 실제 절차에 따라 시 감상에 효과적인 이미지 중심 시 수업 모형을 구안해

보았다.

제Ⅳ장에서는 Ⅲ장에서 구안한 모형을 실제 시작품에 적용하는 과정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텍스트로 선정하여 실제수업에 적용하였다. 대상 작품은 고등학교 『국어(상)』 대단원 ‘6. 노래의 아름다움’ 중 ‘(3)진달래꽃’을 선정하였다. 이 단원은 문학의 아름다움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의 첫 번째 현대서정시 작품이라는 점과 시는 리듬만큼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학습자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혼자하기와 함께하기 등으로 나눈 여러 가지 활동을 활용하여 시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고 시 감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감각적, 부분적 이미지 찾기보다는 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지배적 이미지를 중시하였으며, 또한 이미지 중심의 시 수업 모형을 통해 학생들의 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의 결과도 파악해 보았다.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는 시 제목의 표층적 이미지와 심층적 이미지 찾아보기, 제목에 숨어있는 전설이나 설화 찾아보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텍스트 읽기(close reading) 및 시낭송하기, 감각적, 부분적 이미지 찾기, 시제목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생각그물(마인드맵) 만들기, 사투리로 고쳐 쓰기(패러디)와 시제, 어순을 바꿔서 이미지의 변화 알아보기, 감상문 쓰기의 형태로 비슷한 이미지(또는 내용)의 노래가사를 찾아보기 등의 활동을 학생들과 같이 시도해보고,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어 확대 해석을 해보는 활동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sup>95)</sup>

물론 이미지를 활용한 다른 활동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시에서 느껴지는 지배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산문으로 바꿔보기, 일기나 편

---

95) 학교 교육에서 평가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교수·학습 지도 모형의 적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

지쓰기, 한편의 그림이나 만화로 표현하기, 제목이 같은 다른 작가의 작품과 이미지 비교해보기 등의 활동도 본시학습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활동내용으로 넣지 않았다.<sup>96)</sup>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이미지 중심 수업 모형으로 시 감상을 지도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지 활용은 개인의 활발한 사고작용이 필요한 것이기에 누군가의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시에 나타난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업활동에 임할 것이다.

둘째, 시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내면화가 대부분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면화는 낯선 대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서 시를 배우는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학습자들이 한편의 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시적 정서를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소양과 창작을 겸비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과 의미를 이해될 것이다.

셋째, 화자의 상황에 공감하고 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가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시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대비일 뿐이라고 여기나,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방안은 분명 시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시 감상 교육을 위해 시에 나타난 이미지를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시교육 방법

---

96) 그 이유는 학교의 수업시간이 50분이라는 제한적인 여건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수행평가를 위한 과제로 제시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된다.

은 시의 이해와 감상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므로 시의 종류나 내용, 실제 교육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상), 200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상)교사용지도서, 200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운영자료, 2003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1997

### <단행본>

구인환(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3

김대행(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김은전(외), 『현대시 교육의 쟁점과 전망』, 월인, 2001

김은전(외), 『현대시 교육론』, 시와시학사, 2000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9

김한호, 『슬픈 시인의 노래』, 문예마당, 2000

노 철, 『시연구 방법과 시교육론』, 보고사, 2003

문덕수, 『시론』, 시문학사, 1996

박영목(외), 『국어과 교수학습론』, 교학사, 2002

부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국어과 수준별 교수·학습 지도 자료집』,  
200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선주원, 『시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2003

양왕용, 『현대시 교육론』, 삼지원, 2000

오세영(외), 『시창작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윤여탁, 『시교육론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유영희, 『이미지로 보는 시창작 교육론』, 도서출판 역락, 2003

### <학술지 논문>

경규진, 「반응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권혁준, 「주체적인 시 읽기를 위한 시교육 방법 연구」, 국어교육, 어문연구 통권 제96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7

김주향, 「시 교육방법 연구:상상력 계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김지영, 「현대시 이미지 교육방법 연구-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혜란, 「시의 교육방법 연구-이미지 요소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혜영, 「이미지 작용방식과 상상력 교육」, 국어교육 제105호,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2001

박호영, 「비유와 이미지에 대한 시교육의 방향」, 시안 제3호, 시안사, 1999

손은정, 「현대시 감상교육 방법 연구-이미지와 상상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송상윤, 「현대시 교육방법 연구-화자 영역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심재휘, 「시교육론-시 감상 교육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유영희,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 교육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유영희,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시교육 방법 연구-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윤여탁, 「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시의 표현과 이해과정을 중심으로」, 중한인문과학연구회, 1999

이원표, 「고등학교 시수업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해정, 「현대시 교육을 위한 수업방법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장성욱, 「협동학습을 통한 시 교수 학습 방법 연구 -읽기와 쓰기의 통합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천성민,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의 실천적 연구」, 광주교육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최종민, 「시 교육의 방법론 연구-시 교육 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채형렬,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을 통한 시 교육 연구」, 『전남국어교육  
제8집』, 전남중등국어교육연구회, 2001